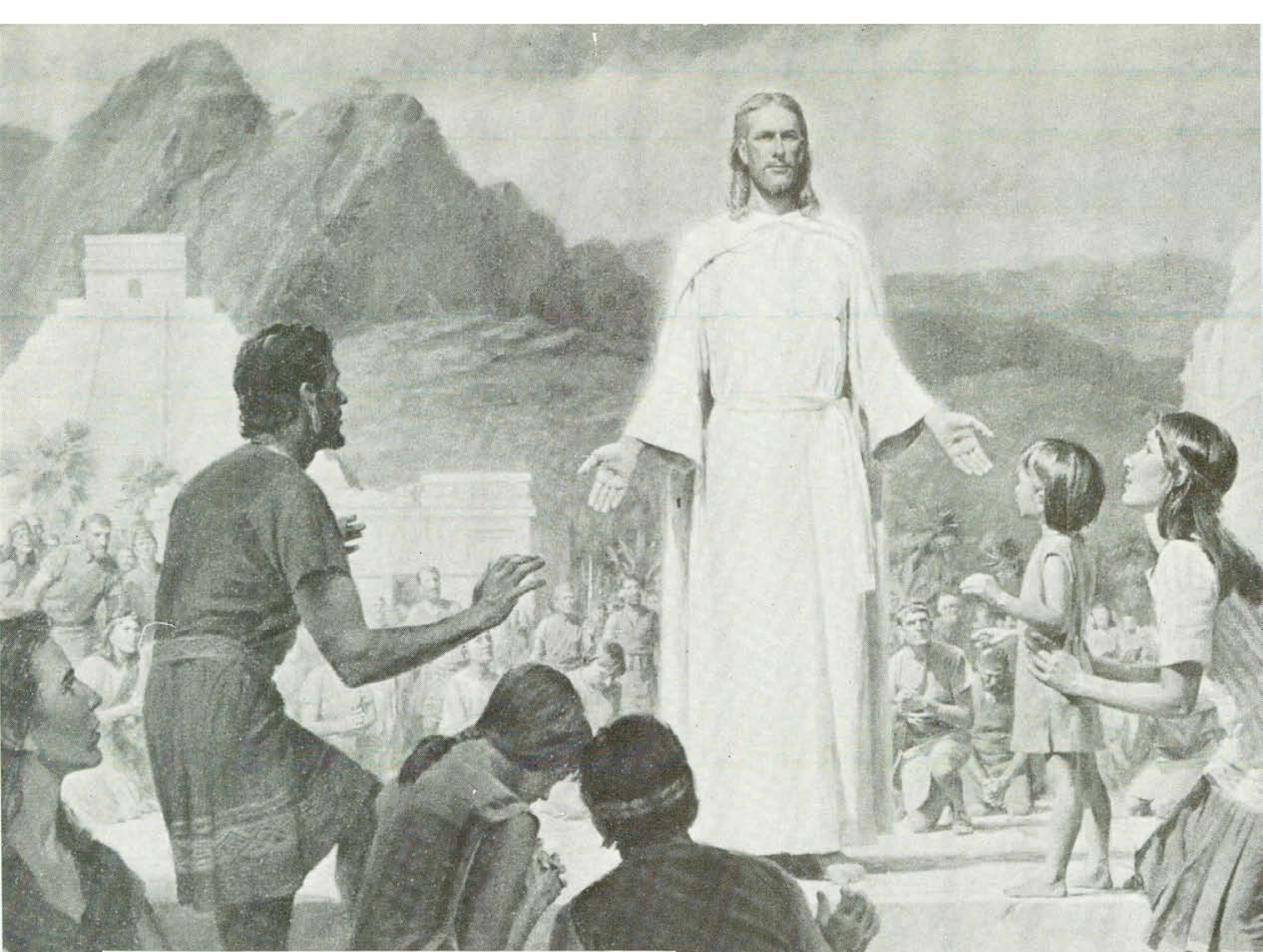




성도의빛 8
1975



목자의 음성

“옛부터, 성지에 밤이 오면 목자는 그의 흠어진 양떼를 모아서 마을로 몰고 가 우리나라 목장에 가두어 둡니다. 양떼를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목자는 소리를 내어 양떼를 불러 냅니다. 양떼는 귀를 쫓긋이 세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양떼는 그 음성이 그들의 목자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 안심하고 귀에 익은 음성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다른 양떼는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 목자의 양들만이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목자는 그의 양을 다시 모아 산기슭으로 몰고 가서 풀을 먹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풀 엘 하몬
모뉴먼트 파크 제8와드
솔트레이크 풋힐 스테이크



월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8호

1975년 8월호

순서

목자의 음성

2. 인생의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7. 필박 토마스 제이 그리피드스
9. 질문과 대답
12. 신앙의 방패 데오도르 엠 버튼
14.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콜린
17. 물론일지
19.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하트만 렉터 이세
21. 안식일 스티링 더블류 실
22. 친구가 친구에게 오 레스리 스토운
24. 행복의 나무 제임스 크리스텐슨
27. 심심풀이
29. 늑대의 울음소리 웬델 제이 애쉬튼
30.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스펜서 더블류 킴블
34. 미대륙의 그리스도 앤 엘돈 태너
37. 부활절의 의의 매리온 지 롬니
40. 하나님의 말씀 : 물론경 에즈라 태프트 벤슨
43. 물론이즘의 바탕 하트만 렉터 이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8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1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중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정가

1권 150원

1년분 (송료포함) 국내 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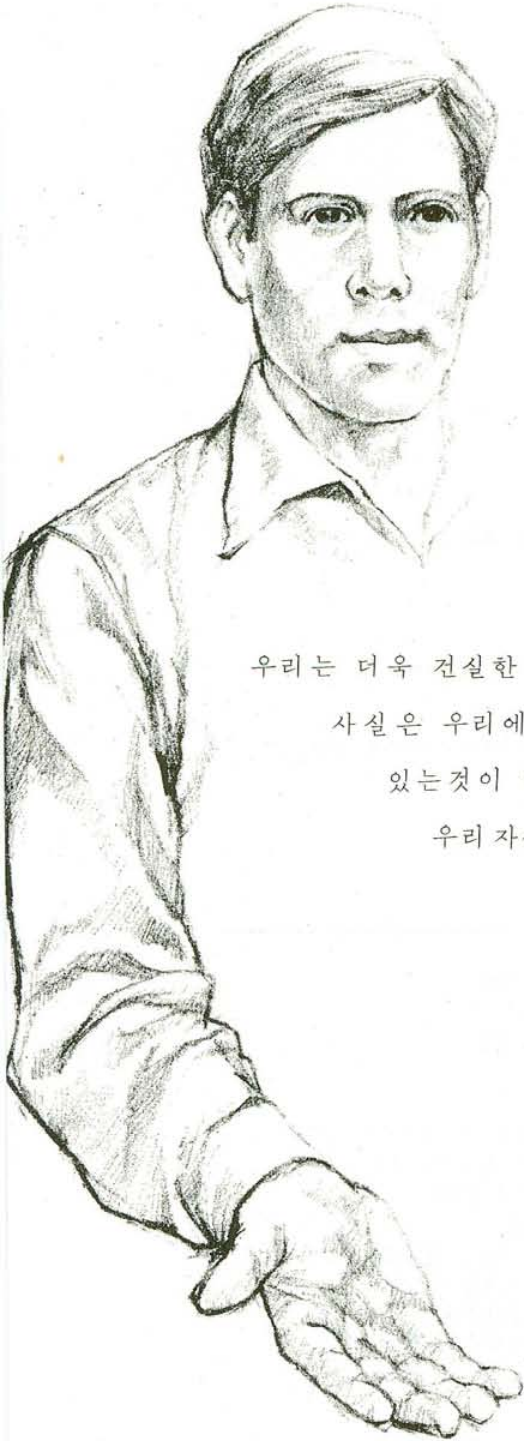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진실한 인간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알고 있거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쾰벌반에서, 집사 정원회에서, 청년반에서 또는 특별 이해반 평의회에서 각자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훈련과 기술을 습득시켜 준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봉사함으로써 봉사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때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다 올바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둘 시간은 줄어들습니다. 봉사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침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게”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이웃을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가치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진실한 인간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완전하게 하려 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문제의 해결책은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때로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옥은 “자기 연민에 빠져 꼼짝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좌절이라는 동상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족되지 못한 기대의 냉기로 얼어붙기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복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이고, 봉사하고, 손길을 넓혀서, 우리 자신의 정지 상태로 인한 가장 무서운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 스스로

이 메시지는 1974년 6월 대회 개최 순서의 김블 대관장의 말씀을 수정한 것입니다.

1. 1824-1905.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요 시인.

목적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하워드 포스트 그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 사항과 그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아론 신권 연령의 소년이었다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온 인류를 위한 지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지상의 평범한 사람에게 단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세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음의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국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성 1: 17)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항상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같이 계획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 각자의 필요 사항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윌리엄 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미소한 것까지도 우연히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미소한 것들 마저도 하나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 부모, 시간 기타 출생에 관계되는 환경 등과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영원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필요 사항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제자들이 모여 사는 곳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상호간의 협조, 힘, 그리고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건강케”(교성 81: 5)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나 도움이 단순한 격려나 세사적인 사소한 일일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작은 행위가 낳는 결과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간에 생기는 차이가 환경에 의하여 커지게 되면, 회원의 신앙은 좀더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간증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보다 강한 능력과 다짐을 갖게 됩니다.

약 25년전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님은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고 중요한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나는 오래 전부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예지, 지식, 인격,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성에는 크나큰 안정감이 따릅니다. 우리는 봉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격려하는 데 필요한 것이, 새로운 계시나 영감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우리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영혼의 위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위장이라는 말입니다. 성신은 우리의 이해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까지 상기시켜 주고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옳다고 알고 있는 것 즉 단순하고, 끝고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일성도인 우리가 늘 성신의 영향력을 받고 성신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만 성신의 인도하심은 그러한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쳤던 사람의 성품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 두세 명을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중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도움을 준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필요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과 시간을 많이 나누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과연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지 살펴 봅시다.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늘 기억되는 사람이란 우리에게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 봉사하고 도움을 주며,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도와 주고, 모범의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위해 봉사해 준 사람들을 의지하듯이,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해 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원리와 봉사 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곧 조직상의 계통이 그 중요성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조직의 계통이

하나의 벽을 이루어, 우리의 본분인 개개인에게 도움을 손길을 미치는 일을 막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조직에 덜 관심을 두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할 개개인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의 일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모범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든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대로 행하라.”

(니파이삼서 18 : 24)

이같이 훈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처럼 성스러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절실하고 뜻깊은 방법으로 헌신적인 지도자는 자기의 봉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물을 “만져 보고” 아는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과 진실성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이 치켜 들고자 하는 등불이므로, 그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교회의 이름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찬 기도, 침례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등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합당하게 놓여졌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극히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고 분별력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만행이 되시는 그분을 훌륭한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이 교회가 그의 교회이며, 그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봉사를 외치기 위하여 함께 모였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같이 사소한 일에 전심 전력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알게 하고, 인류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일에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는 들어 왔읍니다. 노아 시대를 묘사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는 없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였으며, 땅이 “폐괴”하였고 “강포가 땅(사회)에 충만하”였습니다. (창 6 : 11) 폐괴와 강포는 이 기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이는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를 맞기 전에 방주를 짓는 것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하여 봉사하려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노아 시대에 노아가 8명의 가족과 함께 비가 오기 전에 놀림을 받은 것처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이웃은 노아가 수행하는 사업이 절박한 일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 순결, 선교 사업 등과 같은 평범한 일이 절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연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갖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결혼 생활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모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독신 생활이 책임감도 없어서 편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결혼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은 단지 즐거움을 맛보고 부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며, 이기적인 생활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단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곳에 들어 갈 수 있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 : 1-4)

“...만일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 받나니, 이는 아무도 이 서약을 깨뜨리고서는 나의 영광에 들어움을 허락받을 수 없음이라.” (교리와 성약 132 : 4)

어떠한 구실이나 합리화도 이 진리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에는 가족이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인간의 영을 낳기 위하여...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성 132: 63)

그러므로 아무도 합리적 이론을 들어 자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합당하고, 아름답고, 교육을 받고, 단정하며 가장 바람직하게 보이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감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신중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말, 외모, 몸무게, 이상한 버릇 등을 찾아 보십시오. 각 항목을 하나씩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도록 어느 정도의 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판결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수다스럽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소심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세련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상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또는 너무 노출시키는 것, 또는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닙니까? 너무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 억양, 대화의 주제 등에 특별한 버릇은 없습니까? 웃음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습니까? 지나치게 표현이 과장되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존중합니까? 가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자로서 매일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남편을 회생하고서라도 옛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십니까?

윌리엄 제임스(미국 철학자 1842-1910)는 그의 세대에서 가장 큰 혁명가란, 인간은 정신의 내적 태도를 바꾸므로써 생의 외적 양상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품사등의 왕자가 등을 끈게 만들어 놓은 자신의 동상 앞에서 매일 등을 펴고 끈게 서 봄으로써 정말로 그의 등이 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훌륭한 태도로 대치시킬 때 변화가 오게 됩니다. 훌륭한 생각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성품과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가장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외적으로 아름답고 단정하게 가꾸었으며,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며, 고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생활 태

도를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마술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련 장로와 결혼한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그녀의 친구들의 남편은 늘 아내와 함께 교회의 일을 처리하고 함께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함께 신전에 가는 등, 무척 행복해 보이고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생활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남편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남들처럼 아내를 대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에서 좀더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정 증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와드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비활동 회원이었던 그녀의 남편이 충실해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자매는 남편의 새로운 헌신에 대하여 또 다시 못마땅하여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교회 일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른 남편들처럼 아내를 즐겁게 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끊임없는 불평의 소리는 결국 남편을 다시 비활동 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나 마음은 물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늘 아름답고 매력있게 가꾸십시오. 매력을 느끼게 될 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을 찾아 서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위치에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유별나게 만들었습니까? 한 번도 기회를 받아 보지 못하고 20대 중반에 접어 들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언니들과 함께 지내는 집을 떠나고 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도 떠나서, 같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학에 들어 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나는 대학 교정에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리본을 머리에 매고 미풍과도 같이 가벼운 걸음으로 내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낙천적이고 즐거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몇 개월 지났을 때 나는 신전 결혼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경우가 이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는서는 만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행운의 날이 동트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생을 밝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도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à la neige et au...

핍박, 1924년의

웨일즈 지방의 어느 가족은 산길을 16킬로미터 걸어가 교회에 참석했다

토마스 제이 그리피드스

영 1924년, 우리는 몸마우드셔 아버칸의 웨일즈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에는 물론이라고는 우리 가족뿐이었다. 아버칸 지부 회원은 우리 가족뿐이었으나 완전히 조직되었다. 일요일 아침에 주일학교를 가졌고 저녁 때는 성찬식을 가졌다. 수요일 저녁에는 상향회를 가졌다. 우리 가족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했으며 가정에는 항상 사랑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이같은 사랑과 단합은 사탄의 비위를 거스려 사탄은 이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려 하였다.

우리는 곧 핍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고 내 머리에 뿔이라도 있는 줄 알고 내 모자를 벗기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젊은 여인이 찾아 와서는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 교회의 인도자였다. 딸이 우리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우리 가족과 교회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곧 마을 전체가 합세하여 그리피드스 일가는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

지방의 의사는 웨일즈 지방에서 30명의 여자들이 납치되어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기사를 내기까지 하였으며 또 다른 기사에는 물론을 비난하는 말이 실렸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을 마을에서 추방하라고까지 하였다.

그 당시 우리는 시유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당국으로부터 우리가 종교 집회를 집에서 갖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퇴거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는 교회 지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담을 청하였다. 교회 지도자는 신앙개조 12조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그러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주던 훌륭한 모임은 중단되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부는 웨일즈 언덕 너머 약 16킬로 가량 떨어진 발테그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다. 최후 통첩을 받은 후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서, 일요일에 언덕을 걸어 넘으면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들 수 있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버지는 이 제언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심지어 8세 밖에 안된 아이보까지도 찬성의 의사를 보였다. 그리하여 우리 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린마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하포드라이니스 계곡으로 내려 왔다가 다시 폰티폴 산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발테그로 내려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걸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구를 외었다. 한 번은 길은 안개 속에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한데 모으시고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는 우리를 집에까지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믿는다. 보통 때에는 웨일즈 언덕을 감돌던 바람이 위로 불어서 안개를 거두워 갔기 때문에 길을 환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때때로 비가 올 때면 비를 맞아 몸이 젖곤 하였다. 발테그의 성도들은 마른 옷을 빌려 주고 젖은 옷을 불에 말려 주기도 하였다. 때로는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회에서의 영적인 분위기에 싸여 고생이나 불편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즐겨 읽으시던 성구를 기억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경전의 말씀은 진실했다. 주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몸은 생기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의 영은 영적인 양식으로 가득 찰 수가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발테그까지 걸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 의회는 1924년 4월 12일자의 모임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이 쓴 편지였다.

“제 책상 위에는 사우스 웨일즈 아거스지에서 오려 모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귀 의회 당국에서 시의 선량한 시민에게서 그의 집에서 종교 의식을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와 같은 강경 조치의 이유는 오직 그가 ‘물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물론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뜻으로 모든 사악한 무리의 악한 마음에 새겨어져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문제의 그 사람이 여전히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허위 선전 단체’ 또는 그 조직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조직으로부터 귀하의 조처에 따르고 있는 그 시민과 그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왜 기독교는 시 의회의 관할하에 있는 집에서 그같은 기도를 드려서는 안된다고 명하여 그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십니까? 귀하께서 그에게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막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을 권리를 갖고 계시다면, 그가 ‘물몬’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기도를 금하게 할 권리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그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전통적인 특권의 하나를 박탈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생활이 얼마나 의롭거나 간에, 어리석은 군중은 그에게 무언가 나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로 하여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2천년 전 베데와 바사에서 다니엘에게 내렸던 이와 똑같은 법적 조치의 좋은 예를 귀하께서는 알고 계시니, 귀하의 시에 속한 시민과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하셔야 그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조치에 대하여 좀더 정당화 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그 옛날 타이 강이 범람한 것을 초기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지웠던 것같이, ‘2년 전 30명의 여자들이 맥켄이라는 마을을 떠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서 한분이 대영제국에서 어느 여자라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모두 물몬의 책임이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음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신문독자들은 귀하께서 물몬들에 대한 이와 같은 비방에 관하여 진상조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리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귀하께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악한 허위 선전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그와 같이 부당하게 판결하시는 것은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온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조국의 국민이 그와 같은 편견을 갖고 있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시 의회에서는 이 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지방 신문에 보도되어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영국 여성 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그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여성들에게 연설하던 것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아버지는 교회로 개종하게 된 연유와 가족이 받은 핍박에 대하여 말씀했다. 아버지는 소년 요셉 스미스와 그의 시현, 그리고 그가 그의 간증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절한 간증을 드렸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가 말씀을 마쳤을 때는 박수도 다른 어떠한 표현도 없었고 다만 모든 여성들이 그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부끄러워하는 듯이 침묵만이 흘렀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의장이 일어서더니 그리피드스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 의회에 탄원하자고 제의하였다. 그 제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약 1, 2주일 지난 후에 아버지는 시 의회로부터 적절하게 고려한 결과 다시 가정에서 집회를 가질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딸을 막았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가족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키려 애썼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문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께서 저희 가족을 핍박하시는 것을 그치시키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제님이 겸손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후 몇 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큰 딸이 집을 나가 마을에서 슬고래로 이름 난 사람과 결혼하였다. 그의 큰아들은 탄광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또한 막내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자 결코 잊을 수 없는 저녁이 오고 말았다. 문을 두드리 는 소리에 아버지가 나가셨다. 문밖에는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피드스씨 용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작은 딸은 결국 침례를 받고 유타주로 이민하였다. 그곳에서 훌륭한 청년을 만나 신전에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자녀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의 유산을 남겨 주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 웨일즈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발견했던 것이다.

토마스 제이 그리피드스 형제는 아메리칸 포크 유타 노스 스테이크의 아메리칸 포크 8와드 주일학교 교사이다.

질문

유대인의 전설이나 역사에서 출애굽기 28장에 묘사되어 있는 가슴판의 모양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

빅터 엘 루드로우 :

혀 심판 때 쓰는 가슴판과 이에 동반되는 우림과 둠임은 성스러운 도구이므로, 후에 유대인 전통은 이것에 대하여 단지 외형 모습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심판과 결정을 내릴 때 쓰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탈문(유대교의 법전 및 전설집) 편집자요 철학자인 마이모니이드와 몇 가지 탈문 자료에서 가슴판의 외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돌이 가슴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각 돌은 정방형의 모양으로 금에 박혀 있으며, 이것이 28가닥의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천에 연결되어 있다. 순금실은 여섯 가닥은 하늘색 실과 같이 짜여져 하나의 긴 실을 만들고 있다. 금실은 6개의 자색 실과, 다른 두 번째 금실은 6가닥의 주홍색 실과, 또 다른 금실은 6가닥의 좋은 세마 실과 함께 짜였다. 이 4가닥의 긴 실은 한 뼘 길이의 천으로 짜졌다. 이 천을 반으로 접어서 한 뼘 길이의 주머니를 만들었다. 4개의 금으로 장식된 둥근 막대가 겹면에 부착되었고 우림과 둠임은 주머니 안에 넣었다.

금 고리를 각 귀퉁이에 달았다. 위의 고리 두 개는 예봇(두루

마기 위에 입는 방패와 같은 옷)의 어깨에 있는 금고리와 비슷한 모양의 금 사슬에 부착되었다.

가슴판의 아래 두 고리는 푸른 리본으로 허리 가까이 있는 예봇의 금 고리에 연결하였다.

대제사는 이 가슴판과 기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의 일을 집행한다. 가슴판은 물몬이 우림과 둠임으로 행하였던 중요 역할을 하였다. 산헤드린의 머리되는 왕이나 기타 인정받은 사람이 특별한 문제를 갖게 될 때, 그들은 대제사에게 갔다. 대제사는 가슴판을 내려다 보고 가장 밝게 빛나는 글자를 참고하여 해답을 찾아 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림과 둠임에게 사울이 그를 추격해 올 것인지를 물었을 때 대제사 아비아달은 세 개의 큰 글자를 보았다. 유다의 이름에서 Y, 르우벤의 이름에서 R, 단의 이름에서 D. 이것을 합하여 답이 나왔다. 그것은 YERED 즉 “그가 쫓으리라.”였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우림과 둠임은 첫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 없어졌다 한다.

수세기 후 유대인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후, 많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슴판을 만들고 그들의 유대인 회당의 토라(5경)를 두는 벽난로 선반 앞에 놓았다. 대제사의 가슴판과 흡사한 이상징물에는 12개의 귀한 돌을 모조한 것이 박혀 있기도 하였다. 가슴판과 우림과 둠임은 유대인에게 현재 없다.

빅터 엘 루드로우, 브리검 영 대학 고대 경전과 부교수

질문

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야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승천한 사람으로 간주합니까?

대답

엘마 피 버튼 :

엘리야와 모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행하여야 할 이 지상에서의 의식을 행하도록 예임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였겠는가? 이 세 사도들을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였겠는가? 아니면 성역을 베푸시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겠는가?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권은 영원하다. 구세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엘리야라고도 함]는 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구세주 앞에서 변형되었을 때 그들에게 열쇠를 주었다. 신권은 영원하다. “즉 신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교성 78 : 16 참조)아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신권에도 변화가 없다.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신권이 있다. ...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대제사이시며

그 다음이 아담이다.”(구원의 교리, 제2권 110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전에 지상의 의식을 행한 예언자는 누구나 육체를 지녀야 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육체를 그대로 지니게 하셔서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열쇠를 부여하게 하였다.

사도 요한과 세 명의 니파이인이 변형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에녹과 그의 성이 하늘로 들리워 올려졌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다시 지상에 올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으로는 엘마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도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게 되는 승천의 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승천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면전에 가게 되고 영원한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승천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이 지상과 같은 곳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유성에 보내실 성역의 천사를 준비하는 곳이다. 승천된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처럼 충만함을 아직 입지 못하였다.”(교회 정사, 제4권 210페이지)

엘마 피 버튼, 브리검 영 대학
교회 역사 및 교리와 교수.

질문

출애굽기에는 우림과 둠임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서 우림과 둠임의 위치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유래와 용도를 구약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대답

키드 에이치 머저비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림과 둠임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레위 신권의 첫번째 대제사인 아론에게 신권의 권리로 이것이 주어졌을 때이다. (출 28:31; 레 8:8) 그의 성역의 일부는 모세 율법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었다. (교성 68:14-21; 84:18-27) 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으로부터 권고를 받도록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도구가 우림과 둠임이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그의 후계자로 성임하였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민 27:21) 여기서 우리는 우림과 둠임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판결을 받는 도구로 지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도구를 통하여 사울은 한때 죄를 심판하며 하였으며(삼상 14:41; 회람어 및 히브리어 원전 참조)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인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간구했다. (삼상 23:6-13) 우리는 우림과 둠임이 예뵈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우림으로나 다른 어느 것으로나 주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 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삼상 28:6)

바빌론의 속박 이후 유대인이 우림과 둠임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림과 둠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왕과 의로운 사람들이 우림과 둠임을 사용하여 주

님의 권고를 구하였었다고 간주한다. 우림과 둠임을 유대인이 추방당한 후에도 유대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잃어버린 계보에 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권을 소유하는 권리가 레위 또는 아론의 후손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에 2:62-63)

우리는 언제부터 유대인이 우림과 둠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백성들이 계시의 빛을 누리지 못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백성들은 예언자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우림과 둠임을 잃게 된 이유는 전쟁이나 부주의에서라기 보다는 사악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회 정사, 제1권 21-23페이지. 요셉 스미스의 경험 참조. 교성 3:11; 10:2)

키드 에이치 머저비, 브리검 영 대학
고대 경전과 부교수

질문

왜 주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백성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대답

키드 에이치 머저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백성은 땅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잠시 생각해야 하겠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즉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곳 땅의 주민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이 앞으로 사악해져서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합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창 15:16; 니일 17:32-40; 이더 2:8-9)

사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많은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인(아모리인)이 매우 사악하여져서 주님이 여러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인의 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악함이란 성적인 죄악이었으니, 간음, 근친 성교, 동성애 등이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 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니라 그러므로...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 18:24-29)

이와 같이 이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 중에 악에 빠졌던 자들은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되었다. (교성 76:103-104)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상에 더 오래 있게 하여 더 많은 죄악에 물들고, 지상을 더럽히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그들 자신의 타락으로 더럽히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상에서 거두어 가셨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 즉 홍수, 불, 기근, 지진 등등의 방법으로 이같이 하셨다. 주님은 칼을 사용하시기도 하였다. 야벳인, 니파이인, 이스

라엘인, 유대인, 그리고 레이벤은 모두 이같은 무서운 채찍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여야 하는 불쾌한 과업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가나안인을 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 7:1-3) 또한 그 땅을 얻은 후에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 주민들이 그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기억하라고 명하셨다. (신 9:4-6)

주님께서서는 털끝만큼의 죄라도 묵과하실 수 없다. (교성 1:31) 주님은 늘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계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과 싸워야 했다. (이것은 니파이가 레이벤을 죽여야 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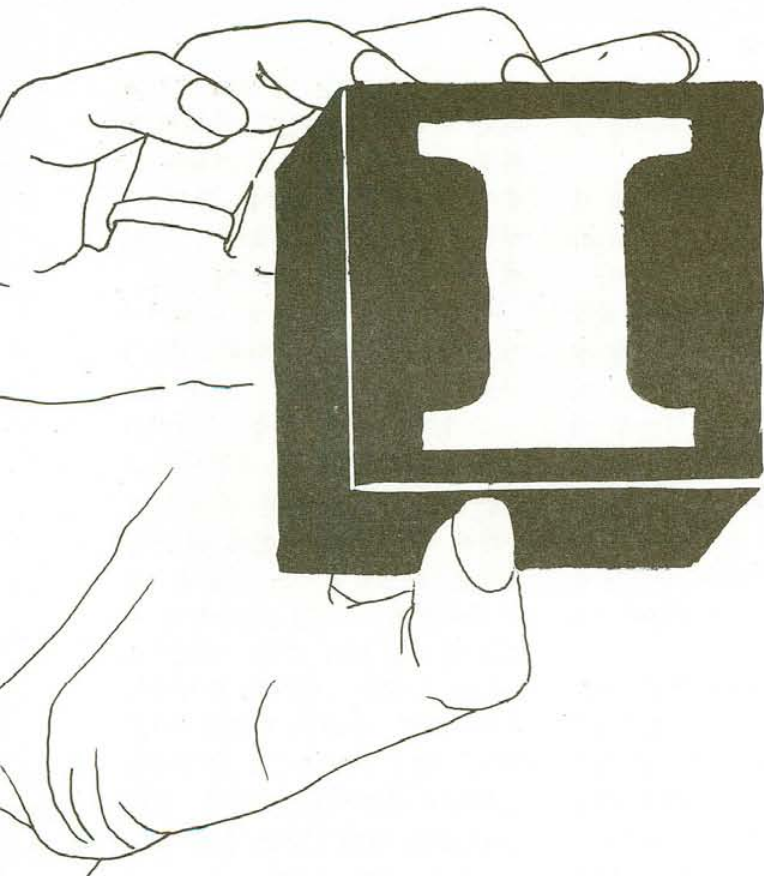
와 같다.) 이것은 주님의 불의에 대한 투쟁의 하나이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들의 순종이 요구되며, 그것은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들이 어느편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 준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하기를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아마 그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그리하여 그 땅을 전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은사로 받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또는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따르는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떠한 목적에서였든지간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 일부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방법은 의로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키드 에이치 머저비, 브리검 영 대학교
고전 경전과 부교수

당신은 한국 대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신앙의 방패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십사이드 보초

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색깔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푸른색 물체를 들어 보이고는 파랑색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따라서 말하게 하였다. 조금 후에 어머니는 다른 물체를 들고는 무슨 색이냐고 물으셨다.

“초록색이죠?” 내가 물었다.

“아니, 이진 파랑색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파랑색.”

“그래, 이진 파랑색이야.”

조금 후에 어머니는 또 다른 파란 물체를 들어 보이면서 무슨 색이냐고 물으셨다.

“노랑색이죠?” 내가 물었다.

“아니, 노랑색이 아니고 파랑색이야.”

어머니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파랑색.” 나는 다시 되풀이했다.

“맞았다. 이진 파랑색이야” 어머니는 다시 가르치셨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다시 또 다른 파란 물건을 보이면서 물었다. “이거 무슨 색이지?”

“파랑색이죠?” 내가 물었다.

“아유, 똑똑하기도 해라!” 어머니는 자랑스러운듯이 말하고는 나를 안아 입을 맞추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색깔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인내심을 많이 가지신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색을 모두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똑똑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히 지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점차로 파랑색을 다른 색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느 누가 그와 같은 물건을 들고 내게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나는 “파랑색!” 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파랑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랑색이라는 걸 압니다”라고 대답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파랑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파랑색이라는 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색을 파랑색이라고 부르자고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배우고, 읽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얻는다.

후에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내가 그때까지 사실이라고 믿어 왔고 알아 왔던 것을 나의 교수는 우습고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믿는 것은 내가 어려서 배워 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그들은 물몬경을 비웃었다. 그들은 요

셍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비웃었다. 그들은 성경이 다른 어떤 책보다 훌륭한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의기가 소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게 비해서 그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모든 해답과 증거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불과 학생이었고 그들은 연구와 경험으로 지식을 쌓은 권위있는 교수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감명을 받았다는 표현은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나의 신앙과 신념은 흔들렸다. 나는 우유부단하였고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가 이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님과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와 신학 연구원과 신권회 교사에게서 배웠고 나의 체험을 통하여 배웠던 나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인가?

지금 나는 과학 분야에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나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또 다른 좋은 대학에서 화학교수로 가르쳤다. 나는 나 자신이 연구하여 학생들이 가진 과학에 관한 의문에 대해 답해 주기도 하였다. 나는 사실과 학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과학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내가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신앙이란 과학적인 지식의 가장 귀중한 분야라는 것이다. 나는 소위 말하는 법의 한계성을 알고 있으며, 법의 가치와 실용성을 인정한다. 나의 선생님들의 지식은 때때로 지금까지도 확실히 입증될수 없는 학설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그들은 입증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학생이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몹서리가 처진다. 내가 얼마나 쉽게 철저한 신념을 갖고 있던 그 교수들을 따를 뻔했는가. 얼마나 쉽게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에 현혹되어 나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표준을 잃을 뻔했는가. 내가 지금 가진 지식과 경험을 또 갖게 된다면 나는 나의 생을 다시 살라 해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훌륭한 부모님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의 부모님은 행복하시고 훌륭한 분이였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했다. 나는 즐겁고 안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 훌륭한 감독을 갖게 되었고 후에 대관장님이 되신 스티이크 부장님이 계셨다.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용기를 주시고 이해력을 키워 주셨다. 또한 대학교에서 나

는 나의 신앙을 복돋아 주고 강하게 해주신 교수님을 만났다. 이들 모두가 나의 부모와 종교 지도자처럼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들 교수 중 몇 분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 중 한 분은 주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셨다. 다른 교수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종교적 이상을 잃어버리게 할 뻔하였던 교수들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환멸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옹호하기로 결심하였다. 나의 종교관에 특히 냉소적이었던 교수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험 답안지에 답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라는 것을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겠습니다만 저의 신앙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나를 잠자코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그 교수에게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고 있으며 그것은 나에게 소망과 위안을 주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파란 물체가 파랑색이라고 배웠던 것같이,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내게 신앙을 가르쳤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의 회복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다. 이 지식은 한꺼번에 얻은 것이 아니다. 때때로 이 지식은 천천히 얻게 된다. 그러나 차차로 신앙과 기도와 연구와 경험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가 현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때로 낙담하거나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또는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스스로 진리를 찾아 알게 될 때까지 우리 세대의 성인들에게 약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면 그를 발견하게 된다. 그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 여러분은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인도자를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이 지상에 보내신 특별한 세대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음악을 통하여

콜린 헨릭슨 글

저자와 별 오스몬드 사진



형제 그들은 어디에서나 형제
간이다. 그들은 함께 일
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
는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널
리 알려지고 있는 명칭인 이들
오스몬드 브라더즈가 이룩한 형
제애는 인간의 형제애를 증진시
키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오스몬드 재단은 전세계의 농
아, 마약 및 알코홀 중독자를 돕
고 형제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은 말일성도 예
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오스
몬드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
져다주는 것인데 그 목적이란 바
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이 재단은 완전히 오스몬드가
에 의하여 설립되어 경영되고 있
다.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 가장인 조
지 브이 오스몬드 일세가 회장이
며, 그의 아내 올리브 오스몬드

오스몬드 재단이 제공한
청각 보조 기구로
어린 귀먹어리 소년을
돕고있는 틸 오스몬드

가 비서이고, 아들 앨런이 부회장이자다. 아들 빌과 톰은 재단의 경영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오스몬드 아이들—웨이, 메릴, 제이, 도니, 매리, 지미—은 악기와 음성으로 재단을 돕고 있다. 노래하는 오스몬드 브라더즈 멤버들은 때때로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집에서 봉투에 우표를 붙이거나 봉투에 편지를 넣는 등, 재단의 일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낸다.

왜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오스몬드 브라더즈의 멤버가 아닌 빌과 톰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약간 귀머거리였다. 다른 형제들이 보잘 그룹으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그들은 내면의 갈등으로 고민해야 했다.

빌보다 정도가 더 심한 톰은 더욱 심한 갈등과 고충을 겪었다.

“저는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설명했다. “눈물을 닦고 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 오스몬드, 너는 네 두 발로 일어서는 거다.’”

그러나 귀머거리라는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초였다. 빌과 톰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 귀머거리의 증세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액의 의료 연구비로 심리학적 적응법, 언어 요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때부터 톰과 저는 귀머거리의 ‘조용한 세계’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빌이 말했다.

그들은 캐나다 서부에서 귀머거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것은 후에 캘리포니아의 농아 선교단을 세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들의 경험 때문에 오스몬드 재단이 발족하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이일에 적극 협조하여, 1971년 재단이 설립되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은 오스몬드 브라더즈의 팬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빌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로부터 어린 귀머거리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무슨 일이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팬들은 이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입 모양을 보면서 말을 알아 듣는 것, 말하기, 농구, 수영 등을 가르칠 수 있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모이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사회 생활에서 불구자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빌의 말이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일부이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오스몬드 브라더즈의 팬들 중에는 이 일에 크게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를 위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회 사업가가 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팬들은 저희 재단에서 일하고는 저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쌓은 경험으로 저는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달성한 것입니다.”

오스몬드 재단과 언어 장애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동하여 교수법과 체계가 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들이 농아와 맹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의 원리에 의하여 그들이 알코홀과 마약 중독자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스몬드 재단 사업의 하나로 이 문제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노래하는 오스몬드 브라더즈의 것이었다고 빌은 말했다.

“팬 클럽 본부에서 오는 수많은 편지에 ‘나는 마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22

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스몬드 가족은 마약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필름과 텔레비전 상업 광고를 계획하였다. 재단에서는 마약 복용에 대한 소책자를 발행하였다.

그들의 세 번째 목표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심어 주는 것이다.

오스몬드 가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뜻한다. 보컬 그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교회관을 발표한다.

재단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즉 우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스몬드 일가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친지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온갖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도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친선 사절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캘리포리아에 살고 있는 14세의 팬에게서 온 편지이다.

오스몬드 일가는 함께 일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오스몬드 재단은 그들의 모토가 말해 주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길이다.



몰몬 일지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헬레나 하노넨

핀란드 레핀란타

(현재 브리검 영 대학 재학중)

8 1960년 초여름, 젊은 청년 두 명은 열심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서 레핀란타의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습을 보아 외국인인듯 싶었다. 어린이였던 우리에게 외국인이란 신비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몰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할머니께서 오빠와 나에게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에 관해 나쁘게 이야기하지마는 그걸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취급당하는 걸 보니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들을 우리 집으로 오게 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에게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장로님은 핀란드어를 잘 못했다. 그는 우리 어린이에게 이해하겠느냐고 이따금 물었다. 우리는 이해했다. 그는 복음을 간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그해 8월에 침례를 받았다.

몇년동안 학교에서 말일성도라곤 나 혼자뿐이었다.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으며 반 친구들의 불친절한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달라져야 해!” 점차로 나는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될 것을 걱정하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나는 고립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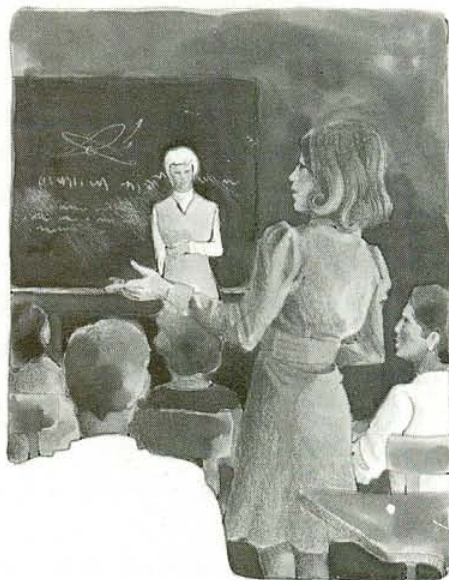
내가 12세에 나는 처음으로 종교 선생님과 논쟁을 벌였다.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영향이 나의 대답에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일어나서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나는 나의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성경에서 인용할 수가 있었다. 결국 선생님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날부터 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겸손히 드리는 간구를 들어 주신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신척적으로는 약하셨으나 영적으로는 강하신 분이였다. 어머니는 내가 택한 길을 잘 견도록 강하고도 부드러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나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둡침침한 카페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음악, 예술, 독서, 스포츠에 전념했다. 곧 나는 반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지도자가 되었다.

학교에서 우리 반이 아침 예배 시간을 인도하게 될 때면, 그들은 내가 전교생에게 나의 신앙관을 발표하기를 원하였다. 우리 반원은 원래의 교회 찬송 대신에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노래한 곡을 부르는 것을 찬성했다.

7년이 지났다. 종교 선생님은 나에게 15분간 교회에 관하여 발표하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두 시간 동안 가졌다. 선생님은 내게 오시더니 내가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몰몬경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참으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다. 나의 젊은 시절 동안 구세주께서는 나의 목자이셨고, 빛이셨으며, 특별한 친구이셨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틀렸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선생님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외할아버지의

용기

아스문드 에이치 허네스

노르웨이, 트론티함

노르웨이 나르빅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나르빅은 부동항이었으므로 스웨덴의 램프랜드로부터 수송된 풍부한 광석을 배로 실어 나르는 중심지였다. 그곳은 외국과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이었다.

세기가 바뀌기 전에 나의 할아버지는 교편을 잡는 선생님이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노래하는 가수로서 이곳으로 왔다. 나의 어머니는 12형제의 막내로 어렸을 적부터 늘 외할아버지와 함께 다녔다. 어머니가 16세이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읍내에서 열리는 집회에 함께 가자고 권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이 집회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읍내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회소로 갔다. 그곳에는 잘 아는 정치가가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뜰을 지나서 훨씬 초라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 가셨다. 그곳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신 것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으며, 놀람게도 어머니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처음에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종교와 다른 것을 어머니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차차 흥미를 갖게 되었다.

장로들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어느 날 어머니는 외할아버

지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어린 소녀가 반드시 그 단계를 밟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외할아버지는 4.8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무실에서 대낮에 집으로 걸어 오셨다. 처음에 어머니는 놀랐다. 퇴근 시간 전에 집에 돌아오신 것을 보아 외할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집에 오신 이유는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입할 용기가 있으면, 그리하여 친구를 잃게 되어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침례를 받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외할아버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털어 낸 듯한 기분으로 다시 사무실로 가셨다.

침례 장소는 집에서 약 1.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한적한 해변이었다. 한 나이 많은 친절할 여자가 옷을 갈아 입도록 해 주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때는 10월이었고 기온은 10°였다. 그러나 바닷물은 고맙게도 미국을 돌아오는 만류의 영향

로 35°가 되었다.

어머니는 기뻐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어머니를 멀리 했으나 차차로 한 사람씩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후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 무릎에서 복음을 배웠다. 그 당시 모든 보조 조직이 완전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나르빅 지부가 교회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부였으나 소수의 신앙있는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의 동이 트는 것을 보았다. 표준 경전은 물론 교재와 기타 자료를 노르웨이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야영과 청소년 대회가 열리고, 지방 대회와 지역 모임이 열리며, 큰 지역 대회도 열렸다. 나는 트론티함에 아름다운 현대식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내가 지부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베르겐, 드라멘, 슬로에 예배당이 있고 두 개의 신전이 세워져 유럽의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하트만 렉터 이세

철심인 제일 정교회

메드 해닝거 그림

현대 예언자는 복음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지시해 주었다. 그러나 현대 예언자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말도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88편 81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부연한 것일 따름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주님의 계명의 경우 모두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를 때 우리의 행동에 따라오는 결과를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 주님의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크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나니, 이는 주님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모세서 1:39)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한국 전쟁 중, 일본 동경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칩제를 받은 나는 1952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로 돌아왔다. 새로운 개종자였던 나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내가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나는 그 복음을 갖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칠라비스타와 노스아일랜드 사이를 다니며 일하는 카풀*의 일원이 되었다. 카풀에는 4명의 다른 해군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회원이었다. 세

명은 중위였고(나와 같은 계급이었다.) 한 명은 사병인 조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4명의 동료들을 개종시키겠다는 결심을 갖고 한껏 가슴이 부풀었다. 직장으로 가거나 집에 오는 데에는 45분씩 걸렸다. 그들은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나는 4명을 개종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카풀로 가서 그곳 사람을 개종시키고, 또 다른 카풀에 가서 개종시키겠다고 결심했다. 얼마 안가서 전체를 다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4명의 동료들에 대한 나의 목표를 수행하여 나갔다. 세 명(중위)은 노골적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내 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러나 조지 화이트헤드라는 사병은 감히 나에게서 귀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조지가 약간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운전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먼저 중위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 조지의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그에게 한 시간 동안 설교한 다음에 그가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나는 조지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약속을 맺도록 하였으나 그는 녀 주 동안 이를 거절하였다. 마침내 그는 나와 함께 참석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의 아내와도 함께 나오겠다고 말했다.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조지와 그의 아내가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참석하기로 되었던 날 전인 토요일 저녁에 내가 늘 드나들던 예배당 뒷문을 닦았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마 그는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가

* 서로 가까이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 함께 차를 타고 다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뒷문을 닫으시는 겁니까? 아무도 교회 뒷문을 닫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뒷문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것이며 더우기 조지와 그의 아내가 내일 아침 이 문으로 들어올 것라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참된 빛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했다.

새로운 구도자를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는 선교사보다 교회를 더욱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아기들이 조용하게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또한 단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졸지 않고 깨어 있다면 더 좋겠으나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지와 그의 아내가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나는 그들을 뺐었다. 우리는 그날 매우 훌륭한 주일학교 모임을 가졌다. (내가 교사였다.) 조지는 확실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집트의 스팅크스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나의 말을 한 마디라도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나는 공과를 끝내고 나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간신히 참았다.

깨끗한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걸어 나올 때, 나는 “자매님,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는 감리교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감리교인으로 죽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이었다. 영국인이 “나는 영국인으로 태어나서 영국인으로 자랐소. 나는 영국인으로 죽겠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스코틀랜드인이 “당신은 포부도 없소?”라고 물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인용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조지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 말일 성도가 된다 해서 당신이 감리교인으로 배웠던 진리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나 종교적 신앙에 관해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항하는 소책자를 쓰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와 같

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꺾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북돋아 주려 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을 통한 은혜’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신교도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리라”(히 11:6)고 말이야.’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교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여 보게. 자네로 하여금 진리를 잊어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가진 것에 신권의 권능과 특별한 경전을 더해 주려는 것이라네.”

그날 내가 조지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일이 일어났던 때는 1952년이였다.

1958년 나는 여전히 해군으로 워싱턴 디 시에 있었다. 나는 남가주 대학교에서 열리는 안전 비행에 대한 특별 강연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로스앤젤리스 신전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조부모와 증조부모에 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조부모 두 분과 나의 어머니(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를 위하여 대리로 신전 의식을 받은 사람은 “저는 감리교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감리교인으로 죽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조지 아내인 루실 화이트헤드였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주일 아침에 내게 그와 같이 말을 한 지 3주만에 침례를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신이 그녀의 마음에 임하여 그녀가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카 풀에서 같이 있던 동료에게 복음을 나누었던 것이 결국 나의 어머니에게 영생을 가능케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나...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
 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
 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
 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 : 8-11

한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여 보면 농가의 일요일이란 1주일 중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해져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남자와 가족의 힘을 빌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데 온 전력을 쏟는다.

그러나 일요일은 달랐다. 일요일은 안식일이었다. 쉬는 날이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었다. 토요일 밤에 말을 방목해 놓고 모든 일을 미루어 놓는다. 토요일은 일요일에 대비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기도 했다. 한 주일을 마무리짓는 일은 “토요일 밤의 목욕”이었다. 목욕을 마치면 부모님은 일요일을 위해 준비하는 깨끗하고 잘 고쳐진 옷을 내어 준다...

일요일은 1주일 중 가장 선하게 생활하려는 날이다. 이날에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책을 읽으며 가장 좋은 생

각을 하고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의미를 던져 주는 사람들과 지낸다. 6일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던 모든 잡념과 근심을 잊고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배운다.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제리 톰슨 그림





친구가

친구에게



정직

오 레슬리 스톤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행 신뢰받을 수 있는 자질인 정직은 모든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는 성품이다. 이 정직이라는 성품은 매우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하셨다.

도둑질이란 비단 돈이나 재물을 남이 알지 못하게 훔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로부터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고용인이 하루에 30분씩 허비한다면 1년이면 30주 이상을 고용주로부터 훔치는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정직이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자신이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수입의 10퍼센트를 주님께 바치는 것도 또한 정직에 관한 한 가지 시험이다.

나는 6살 때 큰 교훈을 배운 것을 기억한다. 나의 아버지는 농장을 파시고 아이다호주 드리그스에 있는 큰 상점을 사셨다. 아버지는 상점 경영자가 되었다. 상점을 경영하신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일이었다. 나무 상자에 포장된 많은 양의 사탕이 들어왔다. 어느날 아침 창고에 나가보니 나무 상자는 모두 열려진 채 있었으며 창고에는 사탕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먹음직 스럽게 보이는 사탕을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몇 개를 집어 먹고 호주머니에도 가득 넣었다. 가게를 나가려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을 지나야 했다. 아버지께서 불룩한 내 호주머니를 보시고는 내 어깨를 팔로 감싸시면서 뒷방으로 데려 가시고는 정직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일지라도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한다고 설명하시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어 보라고 하셨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탕을 갖는다면 동업자에게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나의 손자 아담은 나와 스톤 자매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여행하였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우리는 차를 멈추고 점심을 들기로 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갖고 왔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주고 난 후에야 나는 종업원이 3인분이 아니라 2인분의 샌드위치만을 계산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종업원이 금일 결산을 할 때 금전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내

머리 속에는 나의 아버지가 내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손자에게 정직에 관하여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손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손자에게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더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갖고 식당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종업원에게 샌드위치 1인분 값을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의 돈을 갖는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또한 우리가 그 돈을 갖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매우 실망하실 것이며, 우리 자신도 정직하지 못한 것에 따르는 개운치 못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손자와 함께 카운터로 다가가서 종업원에게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달러 이상을 우리가 덜 지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은 잠시 당황

하여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신의 잘못을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는 즐거운 기분으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행동을 받아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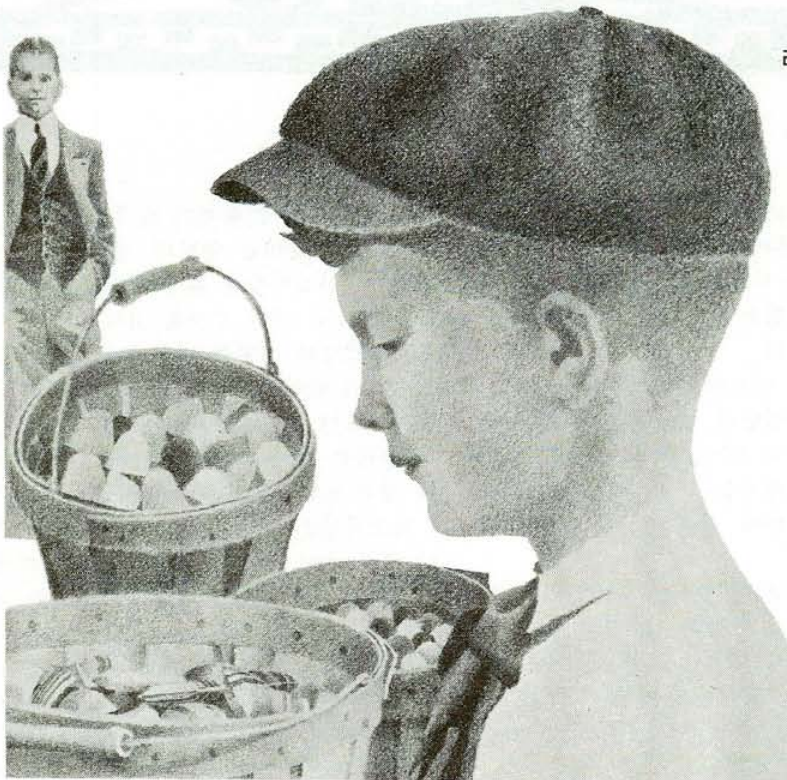
우리가 작은 일에서 정직하기를 배운다면 정직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큰 일을 다룰 때에도 정직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나는 일생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금액의 보증을 받았다. 나는 나의 정직한 성품을 신뢰한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부정직했다면 나에게서는 성장과 향상의 기회가 전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세익스피어의 다음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도 늘 이 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자연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

햄릿, 제1막, 제3장

리차드 헐 그림





행복의 나무

에바 그레고리 드 피미엔타



제임즈 크리스튼슨 그림

(제1부)

행복 높고 고운 피리 소리가 양치는 소년 아드리안이 앉아 있는 바위에서부터 아래로 들려왔다. 요즈음 그의 피리 소리는 어딘가 구성지게 들렸다. 아드리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소리였다.

조용하게 피리를 불고 있는 아드리안의 검은 눈은 언덕 아래 넓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길은 큰 도시인 와사카로 가는 길이었으나 벌써 1주일 동안 아무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없었다. 여행자들은 양치는 소년에게 멈추어 도시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평생 양치기 밖에는 더 될 수 없단 말인가?” 아드리안은 피리 불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 와서는 그의 큰 개인 센티넬라를 휘파람으로 불렀다. “양떼를 몰아 와.” 그가 명령하자 개는 그의 손을 핥고는 곧장 양떼 쪽으로 달려갔다.

질은 자주빛 그림자가 계곡을 덮었고, 지는 해 옆에 걸려 있는 구름에는 금빛과 분홍빛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비쳤다. 아드리안은 넓은 야자 솜브레로(모자)를 벗고 판초를 입고는 다시 모자를 썼다.

조심스럽게 피리를 집에서 만든 모슬린 셔츠 안으로 넣었다. 이 피리는 그가 만든 어떤 피리 보다 가장 훌륭한 것이었으나 아직도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도회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을 듣고 싶었고 그와 같은 소리를 만들고 싶었다.

아드리안은 자기의 조그맣고 갈라진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내 손이 시골 사람처럼 거칠고 굳어지기 전에 바이올린을 쳐 볼 수 있을까?”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센티넬라가 양떼를 산등성으로 이끌어 내려 가서 조그만 오두막 헛간 안으로 몰고 있을 때 아드리안은 양을 세었다. 아드리안이 길가에 다 내려 왔을 때는 벌써 땅거미가 내려 깔려 있었다.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고는

그리로 다가 오는 검은 물체를 들여다 보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어오는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부에나스 타르데스(안녕하세요)! ” 아드리안은 노파가 그의 이웃이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나 노파가 가까이 다가 오자, 아드리안은 노파가 전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밝은 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큰 스카프를 두르고 커다란 금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노파는 집시임에 틀림이 없었다.

“부에나스 타르데스!” 노파는 이가 없는 입을 크게 벌려 미소하면서 답하였다.

“길이 어두워졌는데요, 할머니.” 아드리안은 공손하게 말하였다.

“씨(그래 어두워졌어).” 노파는 지친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밤에 길을 다니는데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아드리안은 노파가 밤의 찬 공기를 막아 줄 쇼울이나 외투를 걸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저의 집이 바로 저기 있어요. 오늘 밤은 저의 집에서 쉬시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시지요?” 아드리안이 말했다.

“애야, 너의 친절할 말을 들으니 고맙지만 내가 너의 집에 가는 걸 너의 부모가 싫어하실 게야. 난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 노파가 말했다.

“저의 집에서는 안그래요.” 아드리안은 말했다. “저의 집은 가난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누면서 지내요.” 노파는 지팡이를 내밀어 아드리안에게 바짝 다가섰다. 아드리안은 자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파를 바라 보았다.

“아마.” 노파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바로 네가 오랫동안 내가 찾았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럴 거야. 네 환대를 받아들이겠어!”

아드리안이 선인장 울타리가 있는 목장 안으로 양떼를 몰고 들어 오자, 아드리안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다.

“마드레(엄마)” 아드리안이 말했다. “이 할머니를 길에서 만났는데 몹시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시라고 모시고 왔어요.”

“비엔베니다(어서 오세요)! ” 어머니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노파는 화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오두막 안으로 안내되어 들어 갔다. 나무를 태우는 불꽃의 그림자가 누추한 방 안에서 흔들거렸다.

아드리안이 양순한 염소의 젖을 다 짰을 때,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황소를 작은 목장 안으로 몰았다.

“제가 명에를 풀고 먹이를 주겠어요.” 아드리안이 말했다. “오늘은 손님이 오셨어요.”

아드리안이 노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들의 술이 많은 검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듣고 계셨다. 그들이 집안으로 들어 섰을 때는 이미 식사 준비가 끝나 있었다.

“잡썰 보세요.” 아드리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얇은 옥수수 빵을 노파에게 건네 주면서 말했다. “딱딱하

지 않아서 잡수시기 쉬울 거예요.” 소년은 노파의 주름진 양 볼에 눈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노파가 말했다.

콩, 토틸라스(옥수수빵), 칠리 소스, 그리고 염소 젖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드리안은 자기의 담요를 갖고 와서 노파의 어깨에 씌워 드렸다.

“분명, 내가 찾던 사람을 이제 찾았어.” 그러더니 여러 겹의 화려한 스커트 사이에서 작은 종으로 짠 것을 꺼내 놓았다. 노파는 그것을 펴서 아드리안의 손에 놓아 주었다.

“이거 씨앗이에요?” 소년이 묻자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타바친이라는 나무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란다. 하지만 나는 이 나무를 행복의 나무라고 부르지.”

“그런데 왜 이걸 제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모든 사람이 이걸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노파가 말했다. “난 지금까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하고 착한 소년을 찾았어요. 아드리안이 바로 내가 찾던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무가 저한테 명에나 돈을 갖다 줄 건가요?” 아드리안은 천진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손가락으로 길쭉하고 단단한 씨앗을 돌려 보았다. 도대체 이 이상한 씨앗에 무슨 비밀이 들어 있는 것일까?

정말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걸까?

아드리안은 씨앗에서 눈을 떼고는 노파에게 도회지와 그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드리안은 노파가 앉은 낮은 의자 곁의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드리안은 휘황찬란한 불빛이 빛나는 홀이며, 붉은 벨벳으로 씌워진 의자며, 멋진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 멋진 오케스트라의 선율 등에 관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서 마음을 설레였다. 잠시 후 아드리안은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누추한 그의 집에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가 “잠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드리안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 자도록 해요.” 노파도 말했다. “난 내일 길을 떠나야 해. 내일 나와 잠시 길을 수 있겠니, 아드리안?”

“물론이죠” 대답했다.

“저희 마을에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계시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어때세요?” 아드리안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아드리안이 즐겼다.

“행복의 나무가 있는 한 나를 잊지 않을 거예요.” 노

파는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노파는 아드리안에게 씨를 심는 방법과 싹이 튼 다음에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씨앗을 대문 옆 뜰 안에 심자고 제안하였다.

머칠 동안 아드리안은 씨앗을 탐고 깨끗한 물에 넣어 별이 잘 쪼이는 곳에 놓았다. 씨앗이 불어 딱딱한 껍질이 부드러워지자 조심스레 씨앗 끝을 따서는 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심었다.

다음부터 아드리안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2주일이 끝날 무렵, 아드리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땅을 뚫고 칠펝잎이 많이 자라 있었다. 즐기는 곧고 단단했다.

아드리안은 이 나무를 조심스레 키웠다. 타바친 나무가 울타리만큼 자랐을 때, 아드리안의 학업은 끝났다. 아드리안은 12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양치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이제 아드리안은 땅을 갈고 곡식을 심는 일을 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아드리안은 행복의 나무의 테이스같은 나뭇잎 밑에 앉아서 피리를 불었다.

“할머니가 저 애에게 그 씨앗을 주지 말았어야 했지 않나 하고 종종 생각되는구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일평생 꿈만 꾸다가 세월을 보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요.”

아드리안의 어머니는 그냥 웃어 보였다. “저 앤 착한 아이예요. 우리 생활은 너무 딱딱하니, 저 애는 꿈을 갖도록 그냥 둘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느 날 아드리안은 봉오리가 커 가는 것을 지켜 보았다. 드디어 봉오리가 터지고 나무는 온통 황금빛 접이

박힌 야생 난초와 같은 진분홍색 꽃으로 뒤덮히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희안한 나무야!” 아드리안의 아버지가 말했다. “꽃도 아름답게 피고, 또 만물이 시들고 땅이 마를 때도 여전히 푸르니 말야.”

아드리안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게 전부인가? 정말 내게 명예나 돈을 갖다 줄까?’

타바친의 갈색 씨 주머니가 넓게 펼친 나무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느 날, 은제 박차의 쟁그랑거리는 소리에 아드리안은 잠깐 놀랐다.

“야, 야!” 오만한 음성으로 어떤 남자가 불렀다.

아드리안은 서서 인사를 했다. 그는 복청색 종마를 타고 있는 사람을 알아 보았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돈 포피리오 파즈였다.

“내가 이 나무를 사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해.” 그는 말했다.

“저희는 가난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팔 나무가 아닌 걸요.”

“타바친 나무를 가져야겠어.” 돈 포피리오는 성난듯이 말했다. “꽃 핀 걸 봤단 말이야. 우리집 농장에다 심어 놓으면 내 마누라가 좋아하단 말이다.”

“나무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원하시는 만큼 씨앗을 드릴게요.” 아드리안이 말했다.

“나무를 갖고 싶단 말이야.” 그가 말했다. “씨주머니를 다 따고 나서 잘라 버릴 거야.”

아드리안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드리안은 타바친 나무로 가서는 낮은 가지에서 씨주머니 몇 개를 따다.

“그 씨앗이 움트지 않으면 더 드릴게요.” 아드리안은 부자에게 말했다.

갑자기 커다란 종마가 뒷발로 딛고 상체를 올려서 아드리안의 머리 위에서 앞발을 버둥거렸다.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돈 포피리오는 소년의 손에 있는 씨주머니를 떨어뜨렸다.

“바보 같으니!” 그는 소리쳤다. “내 혼자만이 그 나무를 갖고 싶단 말이야. 이 고을에서 내가 안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싫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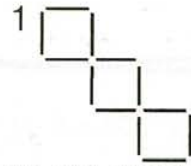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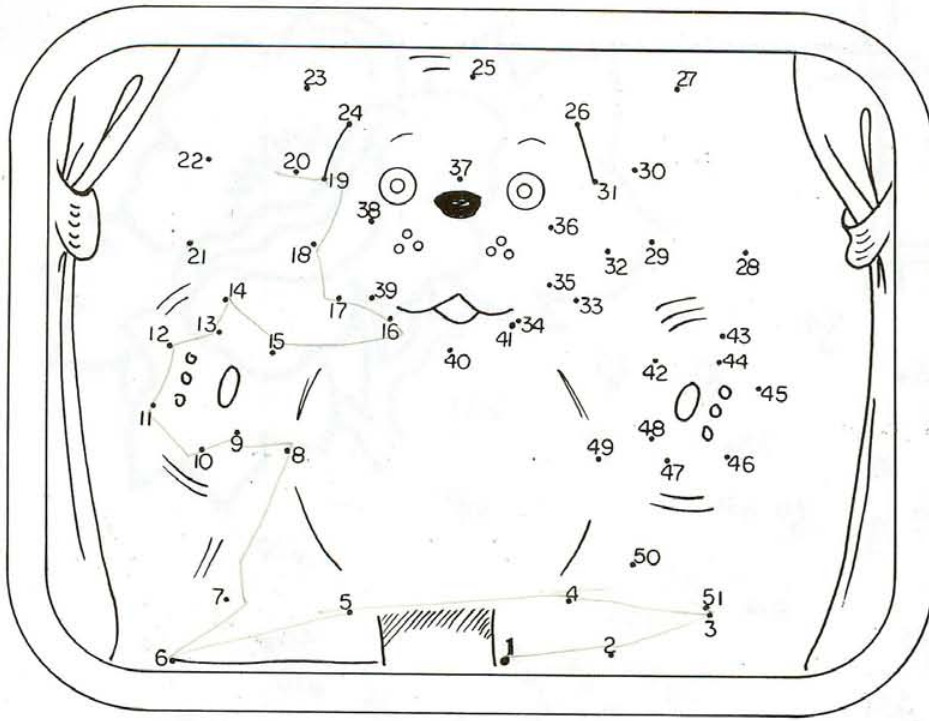
그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성이 난 채 가버렸다.

이제 아드리안은 돈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돈 포피리오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나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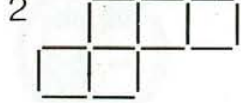
아드리안은 오랫동안 서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쳐다 보았다. 아드리안은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린 긴 씨주머니를 보았다. 천천히 무언가 그의 머리속에는 뚜렷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다음 호에 계속)





1. 성냥 개비 12개로 사각형 3개를 만드시오. 그 중에서 성냥 개비 4개를 움직여서 사각형 4개를 만드시오.



2. 성냥 개비 16개로 사각형 5개를 만드시오. 그 중에서 성냥 개비 2개를 움직여서 사각형 4개를 만드시오.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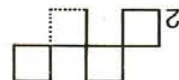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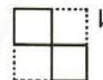
아이스 하키 길 찾기

로버타 엘 페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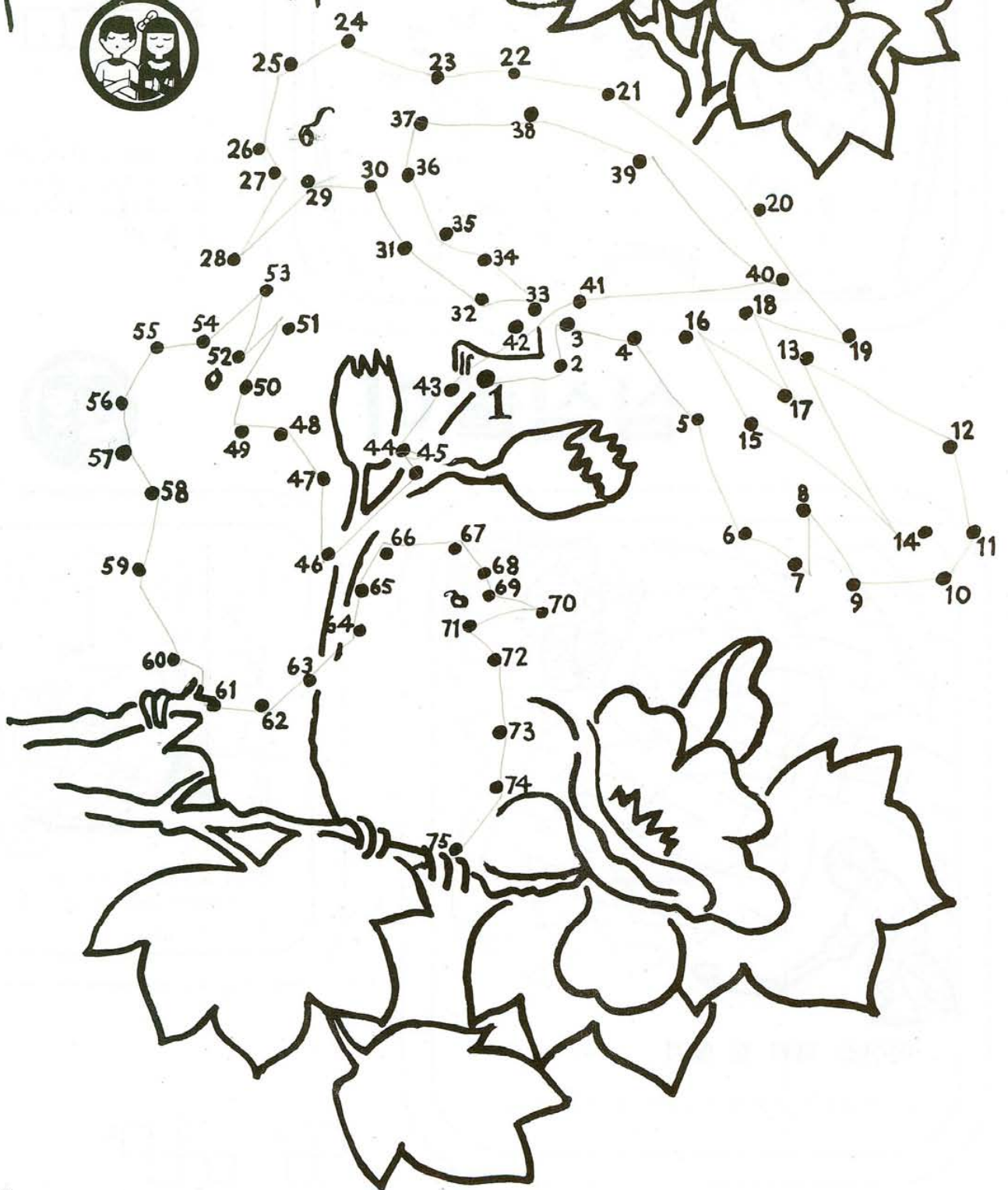
줄 사이로 하키 공을 몰고 고울문까지 몰고 가 보세요.



마모어 TOWNSEND
 아이가 동물원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친절 한 어머니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구로.



1에서 75까지를 연결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엿 나는 산 늑대의 울음 소리는 기억할 수 없으나, 추운 겨울 밤, 코이요테(북미 대초원에 사는 이리)의 울음 소리가 주는 소름끼치는 느낌은 지금도 기억한다.

어린 시절 나의 집은 험산 준령의 록키 산맥 기슭 인근 도시의 교외에 있었다. 나는 7.5센티 간격으로 1.2미터 높이의 쇠막대가 둘러져 있는 침대에서 잤다. 그 쇠막대는 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이요테의 울음 소리가 들리는 겨울 밤에는, 그 쇠막대가 내게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집 둘레의 울타리 뿐만 아니라 이 쇠막대도 내게 보호의 느낌을 주었다. 코이요테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밤에는 나는 유난히 무시무시한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코이요테의 울음 소리가 늑대의 울음 소리만큼이나 나쁘지는 않다고 알았다. 다시 말해서, 코이요테는 그의 사촌별인 산 늑대보다는 덜 무서웠다.

수세기를 통하여, 어린 아이는 물론 어른도 늑대를 두려워했고 증오했다. 희랍과 로마의 많은 작가들은 늑대를 사납고 사악한 동물의 표본으로 삼아 글을 썼다. 고대 희랍에서는 늑대 가죽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하사금을 지급하였다 한다. 오늘날의 개 목걸이는 늑대로부터 목을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함정, 덫, 독, 총과 나무 또는 금속 덫 등으로 늑대와 싸워 왔다.

어느 시인은 늑대의 울음 소리를 “피의 노래”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자연 박물관에서는 늑대의 날을 선포하였다. 잘 길들여진 희색 늑대가 예쁜 소녀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보도진의 사진 기자 앞에서 양치럽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박물관자들이 늑음한 늑대들의 신호를 박물관 강당에서 들려 주었다. 뉴욕 타임즈의 해롤드 시 손베르그씨는 늑대의 울음 소리에 담긴 뛰어난 음악성을 점



늑대의 울음소리

웬들 제이 애쉬튼

토하기까지 하였다.

캐나다 정부의 야생 생물 관리인 시에이치 디 클라크씨는 온타리오주 솔생트 마리에 살았던 집 커펜씨가 온타리오주에서 늑대에 물린 사람에게 보상을 지불하겠다고 나섰으나 아무도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늑대의 울음 소리의 전문가이며, 온타리오주, 워터루 대학의 생태학 조교수인 존 비 테버지씨는 늑대의 울음 소리는 결코 사람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단지 늑대들 사이의 교신 신호라는 것이다. 늑대의 울음 소리는 각기 다르다. 새끼가 죽으면 늑대는 운다. 그 울음 소리는 외로움을 말하는 울음 소리이다.

늑대의 날에 관하여 읽고 난 후 나는 로보(늑대)에 관해서 더 연구하였다. 늑대는 현신적인 가족적 동물이다. 늑대는 일생을 두고 반려자를 찾으며, 그의 반려자와 새끼에게 충성을 바친다. 대개 새끼는 3마리에서 많으면 8마리가 된다. 부모의 애정은 새끼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계속된다. 가족 중 한 마리가 밧에 걸리면 가족은 밧으로 온다. 어떤 암늑대는 숫늑대가 밧에 걸리자 16일 동안 계속 밧으로 찾아오다가 결국 암늑도 밧에 걸렸다. 늑대는 새끼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나, 불순종할 때는 참지 못한다. 늑대는 늑대끼리 평화로워서 거의 다투는 일이 없다.

늑대는 걷는 일이 거의 없다. 놀란다. 코이요테는 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니지만 늑대는 꼬리를 세우고 다닌다.

44년간 미국 어류 및 야생 생물 보호국에서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늑대에 관하여 연구했던 스테인리 피영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늑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 50년 전이었다. 이제는 존경심과 어느 정도의 사랑까지도 갖게 되었다.” (외로운 자의 최후 [뉴욕 : 맥밀란 출판사, 1970년, 305페이지])

나는 늑대에 관해서 좀더 알면서, 늑대의 울음 소리가 인생과도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무서워 한다.

아홉은 오래 전에 잃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브엘세바에서 주님은 아홉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 46 : 3)

이삭이 태어나기 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창 15 : 1)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의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교성 93 : 36)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그에 관한 것을 배우라 앎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에 관해 좀더 알라. 그리고 싸우라.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영생에 관하여 알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호 지난 주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부활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전의 기록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 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웃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

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마태복음 28 : 1-7)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문에 있습니다.” (랄프 소크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것이 대표하는 의미는 세계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결코 그 뿌리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4월 6일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그의 탄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년간의 그리스도의 성역에 견줄 만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어 죽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무덤을 깨치신 것과 같이 모든 인류의 무덤을 깨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암흑의 시간이 무덤에서 나오는 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 : 55).

예수님의 제자 열 한 명은 그리스도를 따라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 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 천사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 : 11)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린도전서 15 : 12)

이 대회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간증을 강하게 하며, 주님께서 합당하게 임명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신 종으로부터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성약과 약속을 새로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합당한 성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침수로써 침례받고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침례받기 원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물 2 : 14) 나와와 교

회 회원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 보여 우리는 침수로써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총관리 역원 형제들과 함께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남쪽 시온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시온은 남북 미대륙 전역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그의 큰 날개를 미대륙의 남쪽과 북쪽으로 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미의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 성도들은 밝고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지도력을 쌓으면서 무용도 즐기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집합”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멕시코에서 행하여지며, 북부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스퀴나비아에서, 독일인의 집합은 독일에서, 폴리네시아인의 집합은 그들의 군도에서, 브라질인의 집합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집합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회원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독립심을 갖게 되고, 보다 신앙이 강하여지는 3백 5십만 성도들의 활동을 우리가 관리할 때 주님께 그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거의 19,000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교성 4 : 4)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이 지구의 각 나라에 보내며 이 세상의 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동서남북 모든 곳과 바다의 모든 섬에 승영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 이 교회는 700개의 스테이크와 7,500개의 와드와 지부, 그리고 150개의 선교부를 전세계에 두고 있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마치 큰 대양의 물로 덮이듯이 복음으로 덮이

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반은 튼튼합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며 밝고 행복합니다. 최근에 동부에서 온 저명 인사가 이곳을 다녀 가면서 그는 내게, “왜 물몬들은 밝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 신권, 능력, 약속, 성약, 신전, 가족, 그리고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디 시에 세워진 훌륭한 신전을 헌납하였으며, 남미 상파울루에 새로운 신전이 세워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이 계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공해가 없도록 하고, 땅을 잘 가꾸며, 청결하게 하고, 생산적이며 아름다운

토지를 만드시도록 권고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초목과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으로 음식, 의복, 집, 곡간, 과수원, 채소밭, 포도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셨으니,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육체를 강건케 하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이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교성 59:16-20 참조)

앞뒤 마당이나 마당 주변이 가꾸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수구가 어질러져 있고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볼 때,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곡간이 기울어져 있고, 마구간에 케인트가 벗겨져 있고, 문에 나사못이 빠져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아픕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우리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옥과 토지를 청결케 하고 잘 관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옥과 토지를 잘 관리하라고 권면했을 때 여러분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사못이 빠져 있던 문은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던 곡간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반쯤 기울어져 있던 울타리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고 있는 잡지에서 짙은 기사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뒷마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숨겨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막고 급박한 세계 식량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를 토지라고 부른다. 많은 토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토지란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집 뒷쪽 양지 바른 곳이 될 수도 있고, 뒷마당을 가로 지르는 3미터 넓이의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공놀이터로 잔디를 기르는 마당이 될 수도 있다.

“식품 가격을 내리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5.7미터 넓이의 마당을 잘 관리하여 채소를 재배하면 6개월간 15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다. 이 수익은 놀랄 만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채소밭을 가꾸고 유실수를 심고, 통조림용 통과 뚜껑을 사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이곳 시 관리들과 기타 많은 사람이 제이차 세계 대전 당시의 “승리의 채소밭”과 거의 같게 작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하는 모든 가족에게 경의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회원에게 1년치의 생활 필수품을 비축하도록 가르치며, 검약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에게 건강의 율법대로 생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의 율



법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의 연구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의 폐암과 식도암 환자들은 특기할 만큼 낮다” 저명한 의사 한 분은 물론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알코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타주의 사망은 일반 미국인의 사망을 보다 25퍼센트가 낮은데 그것은 흡연과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부정직한 행위가 범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 올 때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치기군에게 가게를 모두 잃게 되기도 하고 사기군의 일당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잃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출 20: 15) 고 아담의 후손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이를 틀에 새기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같은 치명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직은 사회나 문화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장과 사기군은 모두 부정적하며 우리의 문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은 전책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3백 5십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은 모두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지불하고, 합당하게 지급된 것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영예와 고결한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예 어떠한 종류라도 도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들어 왔습니다. 퇴보와 피해는 이진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노력없이 물건을 얻거나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갖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최근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미국내에서 존재하는 최악의 주요 형태를 매해 그 비용에 따라 목록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모든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의 5배였으며, 납치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무려 20배, 횡령, 사기, 위조 등의 피해액의 4배, 강도,

도난, 들치기 등의 10배, 예술과 문화에 관한 파괴 행위와 방화 피해액의 25배, 그리고 연방, 주립, 지역 치안 유지비와 범죄를 다루는 법정 및 모든 사법 기관의 관리비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박으로 날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15조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내의 여러 주에서는 주의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복권 추첨 행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클럽에서, 심지어는 종교 단체에서도 도박성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리는 돈을 보다 가치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5조원원으로 전세계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여성들과 십대의 청소년들 사이에 흡연자들이 점차로 증가되어 여성에게도 폐암 환자가 늘어 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폐암의 경우 그 원인은 80퍼센트가 흡연이며, 이것은 문제의 시초에 불과합니다. 흡연은 폐기종, 기관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심한 고통을 주는 병으로 생명을 쉽게 앗아 갑니다.

1833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 자료로써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 것들을 성스러운 계시로 이미 알려 주셨습니다. “뜨거운 음료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 뜨거운 음료란 홍차와 커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 포도주나 독한 음료는 좋지 아니하니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 (교성 89 : 5-9 참조)

주님께서는 습관적인 흡연은 암을 유발하며 습관적인 음주는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몇몇 회원들이 이 금지된 것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일치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눅 6 : 46) 교회의 모든 회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타 대학에서 연구 중인 학자 두 명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 회원은 전통적으로 낮은 사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1년 현재 인구 72퍼센트가 물론인 유타주의 사망율은 미대륙의 모든 주보다 가장 낮았습니다. 유타주 사망율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주도 있었습니까.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사망원인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심장질환, 암, 간장 질환의 사망율은 미국 어느 주보다 유타주가 가장 낮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의 사망율은 지혜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 “왜?”라고 묻겠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 : 21-23)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다가 때로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주님은 에녹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모세서 7 : 32)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세계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금지된 것들을 취하는 데 자유의지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와 나무나 돌이나 금속상을 보고 절하던 것보다 이 세계의 역사상 육육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은 때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것과 연결된 우상 숭

배는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이혼 중에서 그 이유의 정당성을 찾아 본다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부부 중 한 쪽, 또는 양쪽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실, 슬픔, 외로움, 좌절, 특히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많은 자녀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이혼이란 추하고 파괴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혼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부도덕과 욕욕이라는 우상에 대한 숭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마을에서 341건의 결혼 신고서가 발급되는 동시에 272쌍의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부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라”(모세서 3:24)

남편이 아내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비이기적이라면 이혼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훈계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5, 28-29)

또한 아내가 자신의 이기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듯이 의로운 남편에게 헌신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된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이혼율은 낮아지며, 가족이 발전하고, 자녀는 행복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특별한 재능과 힘과 그들의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는 자녀에게 헌신할 때

아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내의 최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여자만이 이 권능과 영향력을 지닐 직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이는 여자에게 국가의 시민을 만드는 책임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에서 어느 어머니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딸일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이야말로 깊은 감명을 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신문, 방송에서나 언단에서 낙태에 관하여 많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며 모든 회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낙태시키는 일을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성적인 부도덕을 허용하는 무서운 방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태를 가장 나쁜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문제를 주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산의 과정을 미리 막는 행위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낙태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평의회에 회부되어 훈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다시 반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6)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호색 문화를 배척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제지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녀가 가족과 함께 이에 대항하는 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역의 좋은 시민인 여러분은 이 추한 악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을 부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연기에 싸여 흔들리는 시내산에서 내려 와서 유랑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곧 우리의 생의 기본되는 규율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초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단지 모세를 통하여 반복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 천국 회의에서 이미 도덕의 규준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은 주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특히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3, 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하여 세우신 시험, 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5)라는 시험에 지고 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에게 평일에 장보러 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소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사회적 행동 규범, 특히 결혼, 성 생활, 가정 생활에 관한 규범을 고의로 바꾸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사 29:14)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개인 생활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미대륙의 그리스도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엠티 최근 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의 정신과 신앙을 살펴 보고, 내가 물몬경의 땅에 있다는 벅찬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미대륙에 살던 초기 주민의 역사가 기록된 물몬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곳의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지역 대회를 가지면서 나는 그들의 소박한 신앙과 주님께 봉사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권고하실 때, 이 보여 준 사랑과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읍니다. 나는 그 옛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서반구의 니파이 백성들에게 방문하시어 그들도 한 우리 안에 들게 하여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게 조직을 갖게 하셨을 때도 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상상해 보았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니파이삼서에 기록된 바로 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물몬경이 출현되리라는 예언을 성경에서 찾아 보고, 물몬경이 참된 책임을 입증하

겠습니다.

구약 성서 에스겔서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겔 37 : 16-17)

성경과 물몬경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두 책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몬경이 전해진 방법—천사가 실제로 내려와서 요셉 스미스에게 전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계시자 요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 : 6-7)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의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성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요한은 구세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 : 16)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서반구에 이미 예언된 표적대로 나타나셔서 서반구의 백성에게도 그의 복음을 배우는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에 관하여 니파이삼서보다 아름답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전은 아무 데

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니파이삼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생의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과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니파이삼서에는 신약 성서의 복음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주님의 교리, 가르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니파이삼서를 가리켜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파이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언자의 말을 비웃고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표적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날을 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물몬경에 보면 니파이가 “힘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자”(니삼 1 : 12)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성스러운 예언자가 이야기한 모든 예언의 말이 성취될 날이 곧 오리라고 대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표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나자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쓰러져 사경에 이른 자 같이 되었던”(니삼 1 : 16)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번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이러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읽고 사악해졌읍니다. (엘 13 : 17 참조) 우리는 전쟁과 게다가 이엔톤 도적단과 땅이 황폐하게 된 것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할 것을 기억한 니파이인은 적으로부터 살아 남을 수 있었으며,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읍니다.

물몬경에는 “저들은 온갖 죄악과 가증함과 음행을 버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느니라”(니삼 5 : 3)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읍이 새로이 건립되고, 수많은 낮은 성읍을 증축하였고, 성읍과 성읍, 땅과 땅, 그리고 처소를 연결하는 많은 대로와 작은 길이 닦아지고 열렸느니라.”(니파이삼서

6: 7-8)

이 지역에 고대 문화가 번성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물문경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 번역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생생한 기록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의 과학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일에 내놓으신 참된 기록입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번성하면 교만해져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불과 6년이 지나기도 전에 많은 백성은 사악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니파이는 과감하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니파이에게 화를 냈으나 니파이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돈독하였던지라, 천사가 날로 저를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었으므로...” “니파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한 그의 형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었으니”(니삼 7: 18-19)

또 다시, 예언자가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표적이 태풍과 지진, 암흑, 천둥, 그리고 불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성읍은 깊은 바다에 잠겼고, 산들이 들어서게 되어 지면이 모두 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던들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건졌을 것이요, 저 큰 성 제이라헤틀라와 더불어 불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하였고,

“또 다른 처소에서 울부짖는 소리 있어 이르되,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우리들 가운데서 쫓아 내지 아니하였던들, 우리들의 모친과

귀여운 딸자식들과 어린이들이 목숨을 건져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더불어 묻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니 이같이 백성들의 애통함이 크고 참담하더라.”(니삼 8: 24-25)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볼 때, 예언자를 배척하고 자신의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재앙을 맞게 되어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여 울고 통곡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그의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 지상에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청소년들의 방탕, 알코홀, 담배, 환각제, 기타 금지된 일을 하면서 불의로 인하여 생기는 타락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법과 무질서 때문에 비통해야 할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고대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 땅의 만백성들 위에”(니삼 9: 1) 나타나서 음성으로 니파이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된 성읍과 그들의 사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들보다 조금 의로와 살아 남아 남게 된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으리니이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에게로 뻗쳐져 있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리니이다.”(니삼 9: 13-14)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에루살렘에서의 가르침이나, 고대 미대륙에 교회를 조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꼭 같은 복음입니다.

음성을 들은 후, 많은 니파이 백성들이 신전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



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삼 11:7)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하늘로부터 흰 옷을 입은 분이 내려 오니, 사람들은 그를 천사로 생각했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삼 11:10-11)

우리는 땅에 엎드렸으며, 그들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구세주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니파이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니삼 11:21)

그는 또한 열 두 제자를 불러 이 권능을 주셨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 반드시 이 권능이 필요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침례 의식은 침수로써 행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그

대회에 참석한 아버지와 아들



에게 주신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에게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황금률을 주셨고, 결혼, 육욕, 음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금식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주님의 기도로써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면서 구원과 승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택하신 열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라. 요셉의 지파의 잔류민인 이 백성들의 빛이니라.

“또한 보라 이곳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상속의 땅이다.”(니삼 15:12-13)

주님은 니파이인에게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으며,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성신에 의해 니파이인과 다른 지파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이 기록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아신 주님은 집에 들어가 꼼꼼히 생각하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잠시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더 머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색을 보고 그들을 가엾게 여겨, 병자와 절름발이와 장님과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나오게 하여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도 데려 오게 명하셨으며, 어린이들 가운데 서서서 우리에게 땅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명하시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그의 간구를 들은 자들이 그 들은 바를 증거하였고,

“저들의 증거함이 이러하였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파이삼서 17:15-17)

그리고는 어린이들을 차례로 안으시어 축복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삼 17: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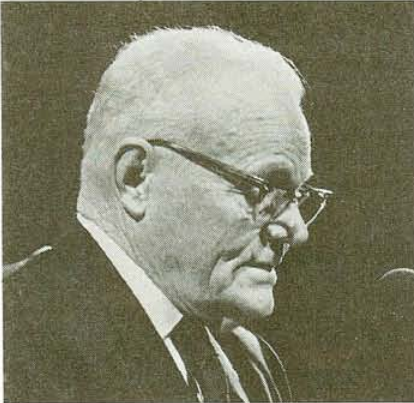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며 이를 무리하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성신을 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에 대한 이사야와 모든 예언자들의 기록을 상고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올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십일조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는 반드시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니파이삼서 27:20)

이상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니파이인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스벤서 더 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부활절의 의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잠시 동안 말씀드릴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부활의 완전한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실제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 사상을 고린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서 보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19-22)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 가운데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을 거듭하여 생각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육은 고통 중에 이같이 외쳤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욥기 7: 17-18)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욥기 15: 14)

시편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시 8: 4-5)

이 질문에 대한 경전상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은 살과 뼈의 죽을 몸을 입고 나온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영적인 창조와 세상에 있게 될 온갖 것, 하나님이 영을 지으신 인간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창 1: 27)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 5-7)

이 성구는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었나니”(교성 88: 13)라는 현대의 경전 성구의 참됨을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 가운데서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영과 육이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생령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성을 받았습니. 그들은 죄없고 청결하여 거룩한 상태로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방문하시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들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없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 16-17)

시간이 지나도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취한 열매로 인하여 그들의 신체는 변함을 입어,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영혼의 사망이었습니.

이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교전 15: 21)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육체와 분리된 영은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예언자 야콥은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습니다.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설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버지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라...”(니파이이서 9 : 8-9)

그러므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인 부활이 인간의 미래의 행복을 얻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영과 원소는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충분한 기쁨을 누리느니라

“서로 분리될 때에 사람은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느니라”(교리와 서약 93 : 33-34)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상태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사망을 인간이 영원토록 겪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현대 제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속죄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영육의 속죄니라.

“영육의 속죄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나니...”(교성 88 : 14-17)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부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무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는 부활을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경전은 영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서 육체를 받아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야 할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육체를 받은 불사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

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 : 11, 14-15, 17-18)

사망의 노예인 인간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아담의 타락을 대속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으며, 이로 인하여 부활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으로부터의 승리의 첫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 20 : 11-17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려고 가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마 28 : 9-10 참조)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명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눅 24 : 13-16, 28-32 참조) 예수님은 적어도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한 번은 도마가 없었을 때요,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발을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반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 24 : 36-43 ; 요 20 : 26-29 참조)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 21 : 1-22) 한 번은 500여명의 무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고전 15 : 6) 그는 “계마에게 보이시고”(고전 15 : 5)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고전 15 : 7)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고전 15 : 8)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도록 명하였습니다. (마 28 : 16-20 참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눅 24 : 50

-51)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부활 후의 성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미대륙의 니파이인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기이하고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능케 한 부활의 권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 : 52-53)

예수님은 지상에 사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로운 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 : 28-29 영감역)

부활 후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셨으며,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부활에 관한 사무엘의 예언과 그 성취를 그들의 기록에 넣으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략된 부분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표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내어 놓아,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여러 사람들로 삼을 것이라”(히 14 : 25) 낫다는 것입니다.

니파이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이루어졌나이다.”(니삼 23 : 10)

제사장 요한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있을 부활에 관한 시현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요한계시록 20 : 4-5)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며”(요한계시록 20 : 12-13)

앰울레크는 지에즈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육체적 죽음의 사슬을 푸신지라 모두가 이 육체적 죽음에서 일어서리라.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라...”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추박에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악하거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엘마서 11 : 42-44)

이와 같이 바울의 외침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

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린도전서 15 : 21-23)

그러하여 인간은 불사불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 1 : 39)인 그의 사업과 영광의 첫부분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속주에게 부활의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불사불멸을 얻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지 않

습니다. 불사불멸은 삶의 길이를 의미하며, 영생은 삶의 질, 즉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등급의 각기 다른 왕국이 있습니다. 별의 왕국은 가장 낮은 등급의 곳이고 달의 왕국은 중간 등급의 곳이며 해의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인간은 영의 세계에서 심판받게 되며 그들의 행위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부활할 때, 그들의 몸이 왕국의 이 세상에서 순종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교성 88 : 17-32 참조)

아담으로부터 절정의 때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훈계하였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셨으며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진리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계 만방에 가르치고 훈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 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해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해의 왕국에서 거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의 영광은 클 것이요, 그렇게 부활하지 못하는 자는 슬픔을 맛볼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시에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정사 6 : 51)

우리는 이 율법에 관하여 본 대회에서 많이 제시하고 토론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것들이 참되며,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신의 증거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극복하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인간에게 부활의 권세의 효력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의 율법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불사불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사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물몬경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영 나는 오늘 매우 중요한 것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물몬경
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8조).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포하셨으며, 물몬경의 기록자도 이
같이 선포하였고, 물몬경의 목격자들
도 이같이 선포하였고, 물몬경을 읽
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몬경의 진실함
에 관하여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모
든 사람이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는 “하나님은...물
몬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나니, 물몬경
에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교성 20 : 8-1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몬경의 예언자, 니파이는 이 책
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나이 33 :
10)이 담겨 있다고 간증하였으며 물
몬경의 마지막 저자 모로나이는 “이
러한 것이 참된 것”(모로 7 : 35)이라
고 간증하였습니다.

천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로나이는 이 고대 기록을 오
늘날의 세 목격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기록에 대한 세 목격자의 간증은 물몬
경 첫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판의 기록이 하나님
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
하여 주신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
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한 것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번역하는 도
구로 쓰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물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
구든지 이 책의 교훈 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
게 됩니다.”(교회 정사, 4 : 461)

물몬경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
나님이십니다. 이 책은 멸망당한 민
족의 기록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축
복을 주기 위하여 영감받은 자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고대 민족은 이 책
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언자 물몬
은 수세기의 기록을 요약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책의 이
름을 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약할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어떠한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는 것을 그에게 지시하여 주셨습니
다. 물몬경은 마지막 저자인 아들 모
로나에게 넘겨 주었으며, 1500여년
전에 기록한 모로나이는 오늘날의 우
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
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
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
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물 8 : 35)

물몬경의 목적은 물몬경 표제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
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
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확신
하게 하느니라.”

물몬경의 최초의 기록자인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오직 사람들을 권
고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
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신 하나님께로 나아 오게 하며 구원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하나
님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기
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려 하노라.

“또한 나는 후손들에게 명하여 만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

판 위에 기록하지 않게 하리라.”(니
일 6 : 4-6)

물몬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
되는 방법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물몬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주의 필요성과 인간이 그
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거
해 주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 복음의 제일 원칙, “애
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물 2 : 14
; 교성 59 : 8 참조)을 지녀야 하는
필요성,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필
요성에 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
몬경은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견뎌야
하며, 성도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
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적을
적나라하게 들춰 내어 줍니다. 물몬
경은 거짓 가르침을 뒤집어엎으며
논쟁을 잠잠케 합니다. (나이 3 : 12
참조) 물몬경은 오늘날의 악의 가르
침, 기만, 악마의 술책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들을 강하
게 해 줍니다. 물몬경에 나타난 배도
의 형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몬경을
만들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서 볼 수 있는 거짓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
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물
몬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는 스스로 이 책을 주의길게, 기도하
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읽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교육받지 못한 청년이 쓴 글인지를 깊
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보라
고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권고하였습
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
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
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
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
: 4) 나는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하였
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책이 하나



님의 뜻에 따라 마련된 책이며,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도구로 물몬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12)

우리는 물몬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니일 19:23)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물몬경의 진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몬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놀라운 시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요셉 스미스는 이일에 관하여 목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현이나 계시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것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는 목사의 반응에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21절 참조)

이 말은 비회원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이 교회에 대하여 제기하는 모든 반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대론 다시 말해서 낙태, 복수 결혼, 제칠일 예배 등등

에 관한 그들의 반대론은 결국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으며 그의 후계자들도 그러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물몬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대론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계시에 밝혀진 해답을 주십시오.

셋째, 우리가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현대의 계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해답의 정확성이 실제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네째, 현대의 계시와 예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물몬경이 진실하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하십시오.

그러므로 반대자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물몬경이 진실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물몬경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예언자였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되며, 현대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요 과업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자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신앙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권세와 크신 영광으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보이실 것이요, 너희와 내가 주의 심판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서리니, 비록 내가 연약하나 주의 명령으로 내가 이것들을 기록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리라.”(니이 33:11)라고 니파이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셨음을 알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몬경은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백성의 기호기”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져”(니이 29:2)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회원은 선교사로서 물몬경을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몬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준 경전입니다.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예언자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물몬경의 가장 큰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며, 그밖의 것은 모두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물몬경이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더 알기를 원하십니까?”입니다. 물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의 하나입니다. 물몬경에 실린 내용은 “제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니일 6:5)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은 이것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몬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부지런히 구하여 알고 끊임없이 이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모두 이 물몬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레이먼인에게 우리의 메시지의 참됨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도구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몬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도록 하는 데 물몬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강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진화론, 합리론, 인문주의 등등에서의 잘못된 점을 들춰 내고 이에 대처하는 데 물몬경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물몬경을 “울려 퍼지게”(니이 29:2 참조)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 윤리, 문화, 또는 교육에 뜻을 둔 자가 물몬경에 담긴 충만한 복음을 바탕으로 삼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몬경을 표준 경전으로 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영에 가득찬 반이 될 수 없습니다. 지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한 물몬경에서 미대륙을 멸망하게 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밀 결사를 세우는 일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가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 중 몇 명은 물몬경을 경솔히 취급하였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 84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게서 견책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몬경을 이같이 다룰진대 온 교회와 시온의 모든 자녀까지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은 회개하며 세계 명 끝 물몬경...을 기억...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교

성 84 : 54-57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몬경 읽기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 사업을 하도록 권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물몬경을 알고 읽는 가정, 지부, 와드에서 배출되는 잘 준비된 선교사입니다. 물몬경을 잘 알고 물몬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를 준비시켜야 할 날이 바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르는 결과는 막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20 : 14-16)

물몬경은 참된 책임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몬경은 누구를 위한 책임입니까? 우리를 위한 책임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몬경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적을 드러 내 보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간증을 얻고 이것을 가르치고, 표준 경전으로 받들고, 이 복음을 “올려 퍼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물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이나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일생을 통해 물몬경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되며 영적,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물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큼니다.

약 25년 전 나는 이 태버나클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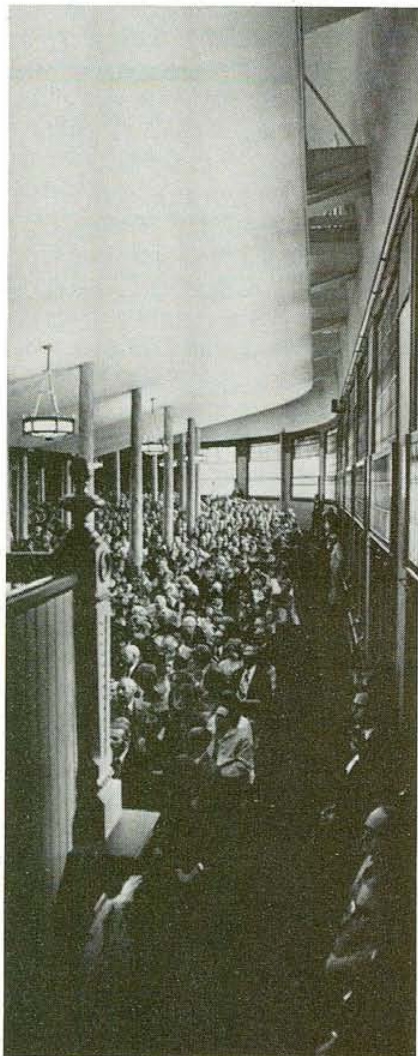
년 전 나는 법을 집행하기 시작하자 나의 가족은 약간 불안해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간증을 지니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물몬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몇분 동안 물몬경 읽기를 9년간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조화있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었습니다.” (대회 보고, 1949년 4월 36페이지) 물몬경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도록 하여 줍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말씀을 하신 분은 메리온 지름니 부대판장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귀에는 그분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물몬경에 관하여 무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물몬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고 확실히 압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과 일치합니다.

“물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 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정사, 4 : 461)

우리 모두가 이 종석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금연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물몬이즘의 뿌리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현재 아무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학설에서 또 다른 학설로 분주히 뛰어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오늘의 세상에서는 악이 되어 버립니다. 임신 불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약은 기형아를 낳게 하였습니다. 지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은 단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해답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해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고, 정력을 유지하고, 고통을 없애고, 피곤을 없애며, 노동을 없애는 비결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없애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라는 경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

느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만족감의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 볼 때, 오랜 경험으로 쌓은 지식은 노년기를 더욱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기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는 하나의 환상을 좇아가는 또 다른 환상을 좇아 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며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는 마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출처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지에 실린 “유타의 빛나는 오아시스”(1975년 4월호 440-73페이지)라는 기사라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게재된 “노래하는 성도”(1975년 4월호 45-50페이지)라는 기사는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모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서 모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재로서 우리 교회의 가정의 밤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실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력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있습니다.

나와 친한 친구 중에는 26년간 교회 목사로 봉사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봉직하고 있던 교회는 한 때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손꼽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고, 또한 선교사들의 가정 방문을 받으면서 불몬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그가 감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거두어 놓은 결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프로그램을 자기의 교회에 갖고 가서 적용하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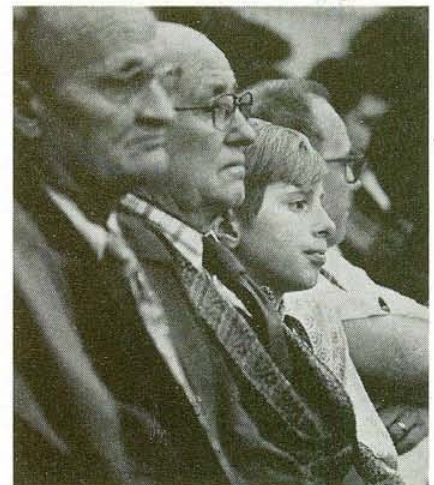
“물몬이즘의 진수가 그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몬이즘의 교리에 있는 걸 발견하고는 약간 놀랐네. 또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원들의 성약에서 교회의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네. 물몬이즘이 뿌리도 없이 그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네.”(존 에프 하이덴라이히,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 건축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상호부조회 프로그램 등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실시할 경우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교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간증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기초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대상은 곧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왔으며,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프로그램은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간증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

말씀을 경청하는 회원들





대관장단

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그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자녀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형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 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신비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오늘의 이 세상에 아무런 지척도 없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를 주시어 주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교성 1:20) 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에서 인간에게 그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으며, 그 권능인 신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침례를 줄 수 있고,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줄 수 있으며,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악귀를 쫓을 수 있으며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등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막 16:17-18 참조)

또한 그들은 이 권능 즉 신권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죽음이

그들을 갈라 놓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입니다. (마 16:19 참조) 이러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가 성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가슴에 지워질 수 없게 아로새겨진다면, 주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빛과 지식과 경험을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프로그램은 인간을 불사불멸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있고 강력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인간이며, 모든 프로그램에는, 맥콩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생이 요구됩니다. 이말은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펴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원하지 않는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의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회생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생을 통하여서만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일에 대한 회생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격, 명예, 명성, 사람들간의 좋은 평판, 집, 농토, 형제 자매, 아내와 자녀,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오점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단순한 믿음과 추측 이상의 확실한 지식이 필요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희생의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신앙 강화, 5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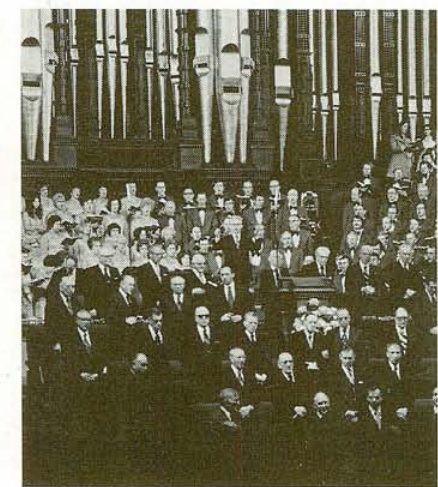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수동적 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말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진실로 이야기하고 온 인류를 위한 계명을 주었다면, 그리고 하늘의 사자인 모로나이(주님의 천사)가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남북미 대륙의 고대 주민에게 준 충만한 복음이 금판에 새겨져 있는 고대 기록을 주었다면, 또한 침례 요한

이 1829년 5월 15일 이 지상에 나타나셔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셨다면,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시 와서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인 벨기세백 신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행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면, 진실로 이상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노니, 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백 5십만 말일성도의 대부분은 이 같은 주장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주시는 모든 권고와 지시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권고하자, 5십만 말일성도 가정은 매주 자녀를 한 자리에 모아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선하심, 주님과 이웃,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 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친절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로부터 주님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영원한 원리에 관한 증거가 풍부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이 원리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

찬송을 부르는 회중



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처럼 이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19,000여명의 젊은 남녀가 그들의 집과 가족과 학교와 친구를 떠나 낯선 이국으로, 때로는 반가이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으로도 떠날까요? 보수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들은 자비로 이 사업을 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회복의 메시지 즉 물몬이즘의 바탕인 간증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세상적인 문제, 특히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시고 말일에 또 다시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음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그의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19-2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교리에 있습니다. 물몬이즘의 바탕이 없이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바탕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이 증거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물몬이즘의 힘이요 생명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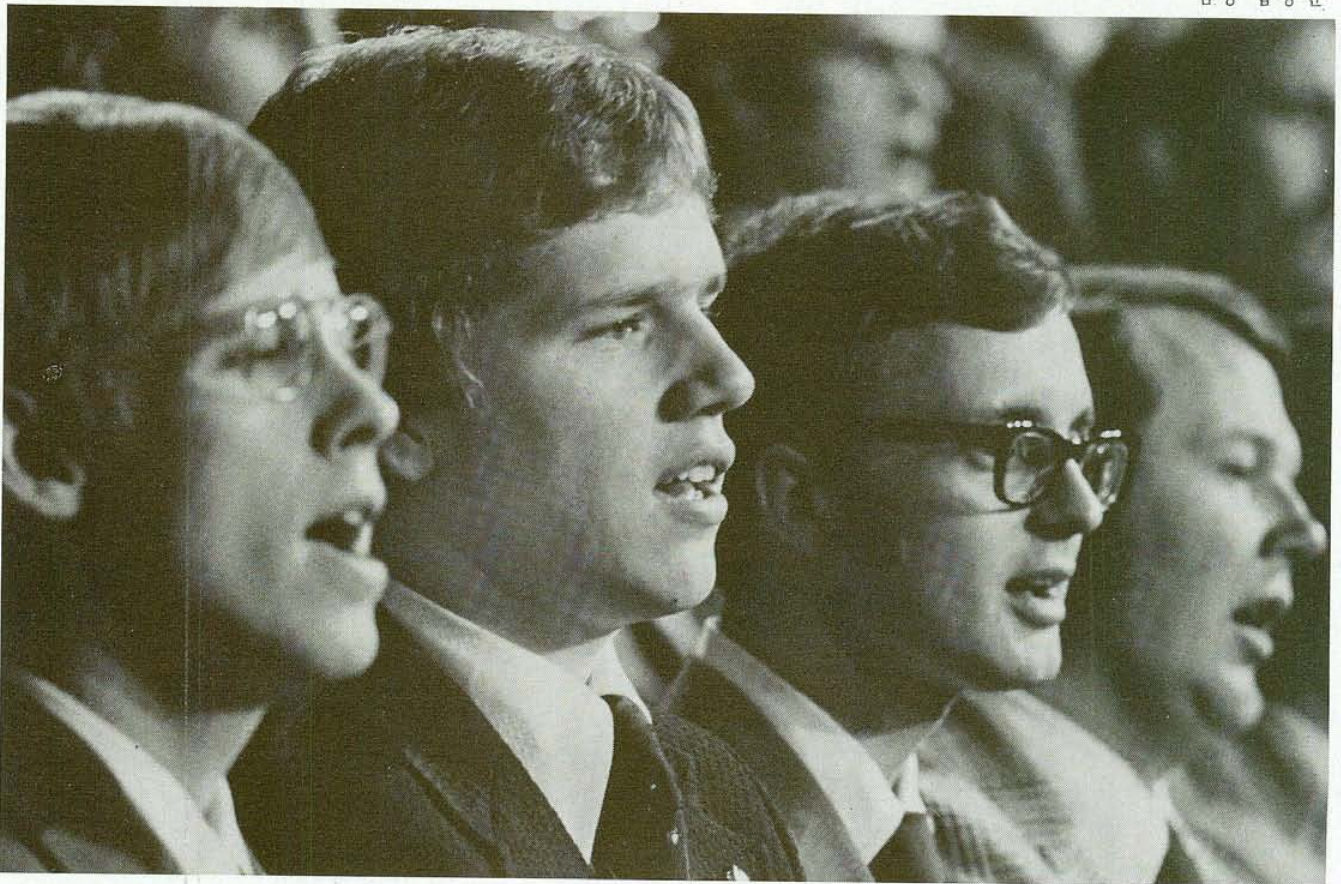
나는 이러한 사실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는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며, 이 교회는 예수께서 말일에 그의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지상에 세우신 참된 교회임을 알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였으며,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간증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모든 일에 관해 결정을 내리시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따른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교회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잘 알고, 각자의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남성 합창단



깨어 있으라!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남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잔치에 초대받지는 않아도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자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모하신 신령을 받는 열지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마치 저마다 들을 듣고 신령을 받으려 나간 열지녀와 같다고 하였습니
다. 신랑과 함께 줄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신부의 품리핀인 열지녀가 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신랑이 밤 늦도록 오지않아 그들은 졸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동승은 결혼 당일에 신랑을 포로로 만드는 일이 있으므로 시간을 알리지 않고 갈자기 그리고 대개 밤에 오게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맡은 열지녀는 자기의 등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다섯 처녀는 통퉁이 꺼져가는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열지녀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기침당하고 기름을 차려 나가야 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은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고 곧 문을 닫았습니다. 서둘러온 다섯 처녀가 닫힌 문을 두드리며 들어보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신랑을 내걸을 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교회 회원을 말하는 것이며 기름은 신앙을 표시하고 다섯명은 현명하고 다섯명은 미련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중 어떤의 열 처녀는 기름없는 상태 즉 회개와 선행이 없고 의식하는 상태에서 광범한 교회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등잔에 기름을 부추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것이냐에 대해 답도든 두드림 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지키며, 사온 건설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들의 등잔에 기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주의를 받게 할 것이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에 대한 깊은 간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신령의 가치를 생각지 않고 이를 행하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세상의 일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들의 등에는 기름이 보존 될 수 없고 불은 밝히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손경라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고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갖추고 깨어 있으니까? 회개와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 회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온 건설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인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지침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득권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에 띠를 묶어매고 충실하고 지혜로운 철지기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밀튼 알 헌터 장로 서거



1975년 6월 2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헌터 장로는 그동안 심장병과 신장염을 앓다가 향년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30년간 봉직했다.

1945년 헌터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그전에는 유타주, 네바다주, 와이오밍주에서 17년간 교편 생활을 했다. 다작의 작가로 이름나 있는 그는 종교 서적과 역사 서적을 23권이나 저술했으며, 많은 논문과 기사를 썼다. 특히 총관리 역원의 요청으로 집필한 “모든 시대의 복음”은 가장 잘 알려진 책으로 1946년도 대신권반 교재로도 사용된 바 있다.

그는 주로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일해 왔는데 만년에는 물문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출토품을 촬영한 사진도 많으며 멕시코와 중남미의 공예품도 많이 수집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물문경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진과 수집한 공예품을 교회에 기증했다.

1902년 10월 25일 유타주 홀덴에서 헌터 장로는 존 에드워드 헌터와 마가렛 티플스 헌터의 11명의 자녀 가운데 여덟째 자녀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후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고등학교에 다녔고, 그후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여기서 그는 1929년에 학사 학위를, 1931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35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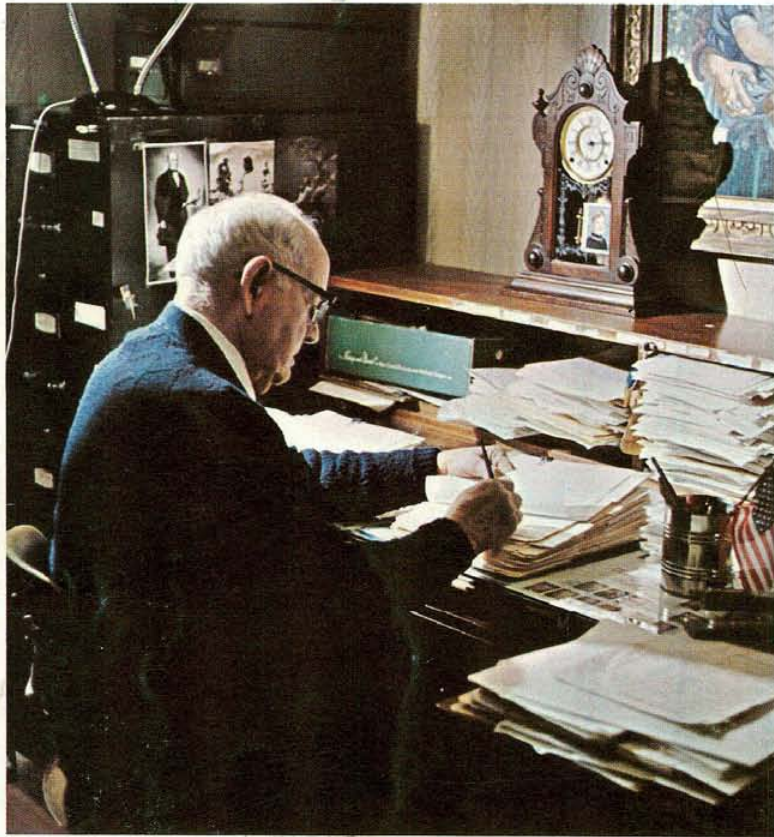
1931년 7월 30일 그는 유타주 리하이 출신인 페르스 가드너 자매와 로간 신전에서 결혼했다. 헌터 장로의 장례식에서 김블 대관장은 “헌터 장로는 그의 영원한 반려자요 아내인 페르스 자매와 6명의 훌륭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교회 봉사와 세상의 명성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유타주 로간에 있는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서 가르칠 것을 결정한 분이기도 하였다. 그는 로간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서 교편을 잡던 중 1945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가족과 함께 로간에 살면서 헌터 장로 부부는 그들의 집을 손수 지어 헌터 장로의 솜씨와 재능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1975년 6월 30일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에스 딜위스 영 장로는 그의 조사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함께 30년간 일해 오면서 헌터 장로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대해 특별한 간증을 드렸다.

작가, 교사, 학자, 또는 선교사로 폭 넓은 생애를 보낸 헌터 장로의 서거는 교회 총관리 역원은 물론 옛 동료였던 교육계 인사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훌륭한 저서와 논문 뿐 아니라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간증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빛을 던져 줄 것이다.



A faint, red rectangular stamp or mark is located at the bottom center of the page. The text within the stamp is illegible due to fading and low resolution.